



空士總同窓會報

發行人：韓周奭

編輯人：姜榮植

(住所)：서울特別市 銅雀區 大方洞 358-1番地 (郵便)：156-020 (電話)：02-823-1091 (FAX)：02-823-1092 (非賣品)

회보 인덱스

2 6·25戰爭勃發 50週年을 맞이하며

4 지구촌화(세계화) 마인드는 우주마인드로

5 성무대 단상(斷想)

9 地獄과 天堂의 문턱에서

10 空中散華한 전우들을 기리며!

12 21세기 詩想形成을 위한 主觀의 作用

14 會員 動靜

15 空士總同窓會 消息

16 母軍·母校 短信 平生會費 納付 現況

星武會의 發展은 積極的인 參與로!!

지난 1年間 本人이 空士總同窓會의 所任을 大過없이 마칠 수 있도록 이해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배 會長님들을 비롯한 同窓會員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특히 積極的인 參與와 支援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7期 同期生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우리 星武會는 기반이 완전히 구축되지 못한 형편임을 감안하여 저는 우선적으로 同窓會 基金 確保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空士 卒業生 모두가 명예스러운 星武會 會員이니 당연히 會員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 사항인 平生會費를 納付하고 星武 會員證을 교부받아야 하겠지만, 現實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基金 造成을 爲해서는 會員들의 積極的인 參與를 유도할 것이 가장 급선무로 생각하고, 특히 졸업생 중 절대 多數를 차지하고 있는 現役 服務中인 會員들로 하여금 同窓會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아울러 會費 납부를 유도하는 努力을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계관들의 적극적인 協助를 얻어今年 3월에 卒業한 空士 48期生들에게 졸업과 더불어 自動的으로 명예스러운 星武會員이 된다는

인식과 함께 자진하여 平生會費를 全員 납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事例는 아직도 同窓會에 대한 認識이 미비한 現役으로 服務中인 많은 졸업생들에게 星武會員이 되어야겠다는 크나큰 動機부여가 될 것으로 確信합니다.

또한, 앞으로 每年 卒業하는 會員들이 自動적으로 加入한다는 前例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역으로 있으면서 아직 會員으로 加入하지 않은 많은 졸업생들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분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同窓會에 積極的인 참여를 유도하기 爲하여 星武會員이 되면, 어떠한 보람과 특전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平生會費 納付 회원에게 星武 會員證을 발급함으로써, 卒業生으로서 받을 수 있는 母校에서의 작으나마 혜택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星武會가 해를 거듭할수록 發展하고 基金도 계획대로 造成하게 되면, 지금같이 空軍이나 母校로부터 支援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母校 發展을 爲해 큰 힘이 될 수 있는 同窓會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空士를 졸업한 現役이나 豫備役 모두가 우선 星武會員으로 加入하고 同窓會 활동에 積極的으로



會長 韓周奭(7기)
20대 공군참모총장

로 參與하여 뒤따라오는 後輩들에게 훌륭한 귀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뒤를 이어 總同窓會 業務를 맡으실 8次年度 會長님께서 星武會를 계속 發展시켜 새 시대에 걸맞는 空士總同窓會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確信합니다.

끝으로 지난 한해 동안 성원을 보내주신 會員님들과, 어려운 가운데도 특별 성금을 지원해주신 會員님들에게 재삼 감사드리며, 우리 空士總同窓會의 조속한 發展과 會員 여러분의 健勝과 家內의 平安을 祈願합니다.

서산대사의 시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눈덮인 광야를 걸어갈 때는
 이리 저리 함부로 걸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편 집 실

論壇

6·25戰爭勃發 50週年을 맞이하며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서울에서 해아지, 東京에서 발표하기에는 가까운 것이지만 하야시(林吉永) 職史部長이 일부러 경주까지 와서 요청했기 때문에 여기서 발표하기로 결심했다.

“역사란 자유로운 나라에서만 훌륭하게 쓸 수 있다.”고 프랑스의 思想家 볼테르는 말했지만 필자가 좀더 부연한다면 “역사란 자유로운 나라에서 자유로운 신분에 놓인 사람만이 훌륭하게 쓸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 이유는 역사의 진실을 솔직하게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6·25전쟁은 한반도를 무대로 하여 20개국의 군대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여에 걸친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韓民族에게 심각한 人的·物的·精神的 被害를 안겨주었고, 그 후유증은 휴전을 하여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겨져 있다. 韓民族이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6·25전쟁의 진실을 밝히고 거기서부터 고통을 찾아야 비로소 자유가 가능하리라.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6·25戰爭의 起源

지금까지 6·25전쟁에 관한 많은 著書, 論文이 발표되었지만 문제점은 소련·북한·중공의 비밀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臆測의 成分이 많았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그 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상당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진상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6·25전쟁사 연구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6·25전쟁의 기원, 즉 누가 6·25전쟁을 일으켰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전쟁의 비극적 결과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관련되고 또 제2차 세계대전 후의 美蘇兩大國에 의한 冷戰이 어느 쪽에 의해 시작됐는가 하는 論爭線上에서 6·25전쟁의 기원의 논점이 비롯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냉전의 기원에 대한 최초의 학설은 傳統主義學派에 의해 정립되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냉전의 책임은 소련에 있다고 생각하며 蔣經國가 더불어 스탈린은 동유럽에서 중동지방을 거쳐서 동아시아에 걸쳐 팽창정책을 추구했고 소련은 마르크스시즘·레닌주의에 따라 세계적화의 목표달성을 위해 모든 수단, 특히 무력수단도 사량치 않은 거대한 제국주의 국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같은 傳統主義學派의 주장에 도전한 것이 修正主義學派이며,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의 대외정책은 더 제국주의적이며 팽창주의적이라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자칭하는 수정주의자들은 미국이 자신의 자본주의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전후의 국제질서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통합이라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미국의 대외정책은 자연히 소련을 압박함으로써, 소련의 대응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해석했던 것이다.

6·25전쟁의 기원을 규명함에 있어서 전통주의자나 수정주의자들은 당초 냉전의 기원에 관한 자기네들의 理論을 그대로 적용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전통주의자들은 마치 냉전이 소련에 의해 시작된 것처럼, 6·25전쟁도 소련에 의해 시작됐다고 해석했고 또 수정주의자들은 마치 냉전이 미국에 의해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로 6·25전쟁도 미국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6·25전쟁은 남침, 북침 어느 쪽인가? 극내전, 국제전, 민족해방전쟁 등 어느 쪽인가도 해결하지 못하고 논쟁이 계속되어 왔으나, 이것은 研究方法에 문제점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이유는 研究對象의 本質에 따라 研究方法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冷戰과 戰爭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研究對象이며, 戰爭은 軍事理論에 의해 분석·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관점이다.

戰爭勃發의 報道

6월 25일 11:00시, 국방부 정훈국장 이선근 대령은 다음과 같이 戰況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오늘 25일 아침 5시부터 8시 사이에 38선 전역에 걸쳐 이북 괴뢰 집단이 대거하여 불법남침하고 있다. 즉, 용진 전역으로부터 개성·장단·의정부·동두천·춘천·강릉 등 각지 전역의 괴뢰집단은 거의 동일한 시각에 행동을 개시하여 남침하여 왔고 동해안에는 괴뢰집단이 선봉을 이용하여 상륙을 기도하였으므로 북쪽 각지의 우리 국군부대는 이를 요격하여 적절한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광양방송은 6월 25일 10:00시에 보도하고 또, 25일 김일성이 다음과 같은 방송연설을 했다.

미국 역적 이승만 괴뢰정부의 군대는 6월 25일에 38선 전역에 걸쳐 38 이북지역에 대한 전면적 진공을 개시하였습니다. 용감한 공화국 결사대는 저들의 진공을 항거하여 가혹한 전투를 전개하면서 이승만 괴뢰정부 군대의 진공을 좌절시켰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엄된 정세를 토의하고 우리 인민군대에 결성적 반공격전을 개시하고 적의 무장력을 소탕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민군대는 공화국 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저들을 38 이북지역으로부터 격퇴하고 38 이남지역으로 10~15킬로미터까지 전진하였습니다. 인민군대는 용진·연안·개성·백천 등 여러 도시들과 많은 부락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김일성 선집』 3, 1954).

김일성의 방송 내용은 북한에서 발간되는 公私를 불문한 모든 책과 일부의 연구자들에 의해, “南先攻”說의 논거가 되어왔으나 그 내용 자체가 허위이고, 또 군사지식이 알파하거나 혹은 거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

先攻戰爭은 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 양군의 배치와 그 움직임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上述한 내용은 전연 거기에 관한 記述이 없는 것이다. 즉, ‘현정세를 검토하여 반격전을 개시’했다면 한국군이 어디를 몇 시에 공격했기 때문에 반격은 몇 시에 개시되었다는 것일까? 과연 반격에 옮긴 인민군이 6월 28일 11시 30분경 서울을 완전히 점령했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대병력(13개 보병사단과 1개 전차사단 등)을 40여 일간에 걸쳐 대구의 전면에까지 남하 침공할 수 있었을까? 동해안의 강릉 남쪽 15킬로미터 지점에 인민군 제766부대(병력은 약 1개 연대 규모)는 06:00시경에 상륙 작전을 개시했는데 그들은 몇 시에 북한을 출발했는가? 김일성의 방송 내용은 기초적 군사지식을 가지고서도 전연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南北韓의 現代戰 遂行 能力

지금까지 6·25전쟁의 연구자들은 정치가의 선언·주장이나, 신문·잡지 등의 기사 속에서 자기의 이데올로기나 주장에 적합한 내용을 인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또 冷戰研究方法에 의해 戰爭史를 연구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 즉 史料批判과 남북한은 과연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하여 現代戰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논쟁해야 할 문제도 아닌 문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한 것이 아닐까?

전쟁준비는 대단히 복잡하다. 예컨대, 戰略·戰爭計劃의 樹立, 戰隊部隊의 編成·整備, 教育訓練, 兵站의 整備, 企圖의 秘密 등 은 불가결의 준비사항이다. 특히 전쟁에는 군사전략계획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군사목표, 군사전략개념 그리고 군사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한에는 군사자원, 즉 현대전에 필요한 무기, 장비, 탄약, 유류 등을 공급할 능력이 전연 없었던 것이다. 예컨대, 한국군은 兵員과 그들의 주식인 쌀을 공급할 수 있었을 뿐이고 그들의 탄약 한 발도 미 군사고문관의 서명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체제였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리 위세있게 북진통일을 외쳐도 헛소리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것은 김일성도 같은 입장이었다.

남북한에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수행할 인재가 존재하고 있었을까? 예컨대 한국군의 육군 참모총장 채병덕 소장은 32세

이고 일본 육사출신 병기참모 소령출신이었으며, 육본의 작전국장 장창국 대령은 26세이고 일본 육사를 1945년에 졸업했다. 인민군의 총참모장 남일 중장은 35세로 소련군 대위 출신, 작전국장 유성철 대령은 33세, 소련군 중위(?) 출신이었으니 10만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한 현대전의 전략·작전계획 수립이나 전쟁 체험은 전연 없었다. 한국군은 방어계획을 작성했다고 했으나 군사자원을 수반하지 않은 탁상계획에 지나지 않았고 인민군은 1950년 5월 바실리에프 중장의 10여 명의 작전고문단과 프와전면적 남침공격의 전략·작전계획을 작성하여 유성철 대령이 그것을 번역했던 것이다. 그런 작전계획을 수행했던 남북 양군의 사단장 등은 30세 전후였으니 실전경험은 소부대에 의한 戰鬪였지 戰爭은 아니었다.

바자노프의 저서에 의하면 1950년 6월 21일 슈티코프 대사는 스탈린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김일성은 ‘남조선의 라디오 방송 및 정보보고에 의하면 남조선측이 곧 있을 인민군의 공격에 관한 세부 사실들을 알고 있다.’고 본 대사에 대해 말하였을. 그 결과 남조선은 군대의 전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함. 방어선이 강화되고 있으며 부대들이 용진 방면에 추가적으로 배치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 발생에도 김일성은 본래 공격 계획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음. 총공세의 서막으로 용진 반도에 대한 국지작전 대신에 김일성은 6월 25일 전선에 걸쳐 전면공격을 가하자고 제안하였을.

이것은 공격 방법에 관한 수정을 하자고 김일성이 제안했는데, 그가 1950년 4월 스탈린을 만나 주어진 공격 방법은 ‘용진 반도에서 인민군이 공격하여 한국군이 반격한 후에 전선을 확대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방법을 최종부터 총공격으로 변경할 것을 김일성이 수정제안을 했던 것이다. 6월 21일 스탈린은 다음과 같이 회답했다.

“……전 전선에 걸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자는 김일성의 견해에 동의함.”

이처럼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공격 방법의 변경까지 승인을 얻어 6월 25일 05:00시부터 38도선의 전 전선에 걸쳐 총공격을 개시했다. 따라서 6·25전쟁은 한국군의 북침이나 혹은 극내전, 국제적 내전, 민족해방전쟁이라는 주장은 전연 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은 스탈린의 승인을 얻어 김일성이 일으킨 侵略·代理戰爭이었다.

韓國軍 初期戰鬪의 敗因

人民軍 作戰局長 俞成哲 大령의 手記, 「나의 證言」(한국일보 1990. 11. 1.~11. 30.)과 소련의

(3면에 계속)

(2면에서 이음)

비밀문서에 의해 지금까지 가려져 있었던 의문점이 밝혀졌다.

첫째, 인민군의 남침계획은 소련의 바실리예프 중장 이하의 군사고문단이 작성하여 이를 번역했다는 것은 朱榮福 著 「朝鮮人民의南侵と敗退」(東京: コリア評論社, 1979) 속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었는데 手記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둘째, 인민군은 왜 서울을 점령하고 3일간이나 허송했을까 하는 이유는 手記에 의해 남침없이 분명하게 해명되었다고 생각한다. 김일성과 그의 수뇌들은 유격전의 戰鬪를 했던 체험은 있었으나 대규모 戰爭의 전쟁준비·수행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책을 범한 것이리라.

이 문헌에 관하여 1950년 7월 1일 소련군 참모본부의 루트를 통하여 평양주재 소련대사에게 발송된 긴급전문에서 스탈린이 "통지는 북한 군사담국의 계획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북한 군사담국은 진전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또는 진격의 중지를 결정했는가? 우리들의 견해에 의하면 진격은 의문의 여지가 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또 남한이 빨리 해방될수록 미국의 개입 가능성도 줄어든다."고 꾸짖었다. 인민군의 그 후의 작전

을 보아도 클라우제비츠의 「戰爭論」에 "무엇보다도 적의 완전한 타도, 따라서 적 전투력의 격멸이야말로 모든 군사적 행동의 주요목표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 같다.

셋째, 북쪽에서 서울에 이르는 다리, 즉 임진교, 의정부교, 잠동교 등의 교량폭파의 실패는 지금까지 한국군 공병대의 판단 과오 혹은 기술, 자재의 부족으로 인한 실패로 생각해 왔으나 手記에 의해 그 원인이 밝혀진 것이다.

넷째, 한강대교의 폭파를 명령한 것은 누구인가? 명령권자인 參謀總長 蔡秉德 少將은 "군사지시"에 있는 자가 그런 경우에 전화를 명할 이유가 있겠는가?"하며 발령을 하고는 7월 27일 河東 마루고개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너무 일찍이 다리를 폭파한 책임을 공병감 최창식 대령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 1950년 9월 21일 부산 교외에서 처형했다.

1960년대 필자는 공군사관학교 교수부의 교관·과장(중령)으로 생도들에게 6·25전쟁을 가르치면서 민간대학교에 가서 역사학을 공부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역사학 연구방법을 통해 한국군이 초전에서 완전히 참패한 원인을 규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李植根 박사(경희대학교 대학원장, 6·25전쟁 당시 국방부 정훈국

장, 대령)의 지도를 받아 「初期韓國戰爭의 戰史的 研究」(1968)로 석사학위 논문을 집필하면서 참과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했지만 오히려 의문이 더 많아졌다. 1969년 10월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의 文昭爽 위원장(해병대 준장 출신)을 찾아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재병덕 참모총장의 모순된 여러 조치, ① 방어전지의 건설 건의를 묵살한 것 ② 6월 10일에 군수뇌·사단장들의 인사이동의 실시 ③ 계속되었던 비상경계 6·25전쟁 직전에 해제된 것 ④ 6·25전쟁의 주말에 3분의 1의 병력을 외출·외박시킨 것 ⑤ 1개월 전 각 연대에 4문의 대전차포를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회수한 것 ⑥ 전방사단의 예측 변경 ⑦ 6월 24일·25일의 심야 파티 등인데, 아무리 연구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② ③ ④ ⑤ ⑥ ⑦에 대해 나는 文委員長을 바라보았다. 그 분이 나를 바라보면서 말문을 열었다.

"2차의 심야 파티는 국일관에서 25일 오전 2시까지 진행되었으며 그 비용은 鄭國殷이 지불했으며 더 큰 사건이 있지만"하고 입을 다물고 말았다. 나는 지금까지 의문이 풀린 것에 만족하고는, "그 사건의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주시시오."하고는 돌아온 것을 지금도 후회스럽게 생각한다. 그 이유는 더 구체적인 내용

을 들어두었어야 하는데, 하고. 鄭國殷은 전쟁 당시, 신문기자로 활동했으며 그는 "거물간첩"으로 1954년 2월 19일 사형을 당한 인물이며, 蔡秉德 참모총장의 부관, 羅長統 중위는 韓國軍의 軍籍에도 없는 인물이며, 전쟁발발 직후 행방불명이 되었다.

韓國軍의 敗因, 이러한 여러 문제점, 蔡將軍의 死因 등은 지금부터 새로운 視角에서 규명되어야 할 과제이리라. 군대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언제 일어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언제나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데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전쟁의 抑止도 가능하리라.....

武力에 의한 한반도의 통일은 다시 국제전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리라. 예컨대 1,300여 년 전 신라의 삼국 통일전쟁에 있어서도 당나라와 왜국이 개입했던 것이다. 만약 이승만, 김일성 그리고 남북 수뇌들이 신라의 삼국 통일전쟁의 교훈을 알고 활용했다면 6·25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남북통일이 한민족의 숙원이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결코 무력예에 의한 통일을 내재해야 한다는 것은 필자의 견해일 뿐만 아니라 소망인 것이다.

李鍾學(37)
서라벌 군사연구소장

그래도 웃고 살아야지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특징을 한 가지만 들라면 나는 서슴지 않고 웃을 수 있다. 영리한 동물인 개는 훈련만 잘 시키면 3~4세 된 꼬마 정도의 지능발휘가 가능하여 간단한 말을 알아듣고 심부름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개가 웃더라는 말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개에게 웃는 훈련을 시켜본 적이 있는데 모르겠으나 시켜본 게 개가 웃기는커녕 훈련을 시키는 사육사만이 웃기는 사람이 되고 말 것만 뻔하다.

참공을 나는 새들 역시 노래는 잘 불러도 웃지는 못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면서 오직 인간에게만 웃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어느 동물인들 흉내나마 낼 수 있느냐!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된 선물인 웃음을 쫓겨쳐 버린 채 삭막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의 정체인 웃음이 사라진 것이어서 흔히 부귀영화만이 행복인줄 알고 그것을 얻어보려 안간힘을 쓰다가 뜻밖에 닥치는 불행 앞에 시달려 웃음을 잃고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실상

공간에 쌓이 그득해도 하루 먹을 양식은 고작 두어 되면 죽는 것이고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해도 그것은 한날 허깨비 같은 것으로 결핍하면 오욕을 남기며 추락하기 십상인데도 말이다.

괴테는 "행복은 너의 곁에 있으니 그것을 잡는 방법만 알면 행복은 바로 너의 것"이라고 말한바 있지만 그 행복을 잡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웃음이라고 나는 감히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물론 한번 웃는다고 행복이 곧 찾아드는 것은 아닐테지만 "웃고 있는 가운데 즐거움이 싹트고 불행의 씨앗은 서서히 말라버리게 된다."는 어느 심리학자의 주장에 비추어보면 턱없는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그때마다 난국 타개를 위하여 근심걱정에 빠져들기 마련인데 이중 70~80%가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사실이 통계로 나와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근심의 멍에를 스스로 지고 끄고며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사실상 안될 일이 근심 걱정을 하고도 해서 풀리가 만무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말이다.

성경말씀에도 "내일 일

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옛말에 笑門萬福來란 말이 있듯이 웃음이 즐거움을 불러들이는 초대장이며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임에 틀림없다. 비록 세상 일이 어렵지 못하더라도 인내하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웃으며 살다보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진리인가 보다.

서울시내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들들이 오싹할 때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있다. 양보를 하며 웃음을 보내면 사생결단으로 끼어들던 상대방도 미안한 표정으로 따라 웃는다. 이것은 웃음의 전파라는 심리적 작용으로서 욕설을 퍼붓는 것보다 훨씬 큰 교육적 효과를 얻는다. 웃음은 마치 한 사람이 하품을 하면 주위사람들이 따라 하듯 출몰이 따라 웃게 하는 반사작용을 낳는 동시에 즐거움까지 유발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웃는 얼굴에 침 뱉으라.'라는 속담도 있지만 웃음은 본인의 마음은 물론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너그럽게, 여유있게 그리고 나아가서는 모두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사실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내 가까운 친구 중에 박

대령이 있었다. 사무실에 찾아와 그의 얼굴이 하도 까맣기에 그 이유를 물으니 "씨 웃으며 하는 말이 '사이트 대대장으로 높은 산꼭대기에 살다보니 태양과 가까이 까맣졌다.'는 것이었다. 심상치 않은 그를 반 강제로 함의원에 끌고가 진찰을 받게 한 결과 간경화 증세가 심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즉시 입원하라는 군의관의 권유에 "사람 웃기지 마소."하며 수긍하지 않았던 그였지만 가족과 동기생들의 감정에 못겨 국군통합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가 입원하고 있던 6개월 동안 영관장교 병동에는 운동 웃음꽃이 피었고 간호장교들까지도 박 대령의 병실에 들어오면 웃다가, 웃다가 결국 주사를 못 놓고 그냥 나가기 일수였다고 한다. 스마트한 용모에 눈웃음을 살살치며 재치와 친절로 웃는 그에게 매료되어 병이 완치된 사람들마저도 퇴원을 아쉬워하더라는 에피소드를 남겼다.

박 대령이 퇴원을 할 때 가족들에게 "앞으로 잘하면 1년 정도 더 살테니 잘 보살펴 주라."는 답답한 의관의 참담한 조언이 있었지만 그는 8년 여를 더 살며 사람들을 웃기다가 웃는 얼굴로 아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가 군의관의 진단보다 훨씬 긴 세월을 더 살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의 보살핌도 컸지만 걱정을 모르는 그의 낙천적 기질에 연유했음이 분명하다. 그는 늘 웃는 얼굴로 남을 웃기는 가운데 자신도 웃으며 살다간 즐거운 인생이었다.

어느 외국사람이 쓴 글 중에 "누가 사람들의 얼굴에는 세웃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반해 한국 사람들의 얼굴에는 늘 화병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는 내용을 읽고 失笑를 금치 못했다 기억이 난다. "사람 웃기만 하면 그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엄하고 나라 한 표정을 바꾸보려 10여 년 전인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스마일 운동'까지 전개한바 있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끝이버린 표정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 판국에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피라키니마저도 요모양 요플이니 제정신으로 웃고 살기를 기대하리란 물건너간 것 같다.

그러나 어찌하랴?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이상의 의미가 없더니 자신의 머리 속에 즐거움을 그리면서 스스로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는 "나후로 웃기 운동"이라도 펼쳐 보거나 아니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EDPS(○패설)에 의지해서라도 웃으며 사시기를 권하는 마음 간절할 따름이다.

金國璋(7기)
명치전문대 교수

지구촌화(세계화) 마인드는 우주마인드로

서 언

나는 43년 전인 1957년 3월까지 지상에 있는 비행기는 한번도 본적이 없이 서울 작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해에 있는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따라서 그때까지 나는 공군은 푸른 제복에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멋있는 군대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때의 '하늘'이라고 하면 통상 공중을 의미하면서 이를 영어로는 'Air'라고 하고, 공군을 'Air Force', 그리고 '공군마인드'를 'Air Force Mind'라 하며 이를 강조하였다. 여기서 공군마인드라고 하면 이것이 '군인정신'을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군정신'을 의미하느냐 등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한 혹자에 따라서는 전연 생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공군만이 아닐 수 있는 '에토스(Ethos)'나 '전문직업기질(Professionalism)'을 의미하므로 '공군마인드'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늘이나 공중(Air)이라고 한 것은 지구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과 지구의 인력이나 중력이 미치는 범위까지를 의미하였기 때문에 이는 어디까지나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구에 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지구는 땅(육지), 바다, 그리고 하늘(공중)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다시 군대로 하여금 예로 든다면 육군(지상군)은 땅을 그 활동 무대로 하고, 해군은 바다를 그의 활동 무대로 하며, 공군은 하늘을 우리의 활동 무대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들은 어디까지나 지구 내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선진국을 특히, 미국은 공군(Air Force)에서 우주군(Space Force)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또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족을 하나 더 달면, 지난 10월 우주공군 창설 50주년 기념행사 시 나는 공군 제5전술공수비행단의 김영곤 단장의 초청을 받았는데 축배시 '하늘로 우주로'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을 처음 듣고 몹시 놀라기도 하면서 한탄 호소하였다. 여기서 우주군이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지구라고 하는 한정된 하늘을 벗어나서

우주공간과 거기에 떠 있는 여러 위성들까지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군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지구의 하늘을 벗어나 우주공간으로 활동무대가 넓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을 땅(지상)을 벗어나 하늘과 우주로 날고 싶은 열망의 우주마인드(Space Mind)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인류사적으로 보면 인간이 땅을 떠나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과 열원은 고대부터 있었으나 오늘날과 같이 공중과 우주를 날 수 있게 한 우주마인드의 선구자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와 라이트형제(Orville Wright와 Wibur Wright)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다 빈치는 오늘날과 같이 동력에 의하여 공중을 날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500여 년 전의 문예부흥기에 인류의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고, 라이트형제는 1903년 동력에 의한 하늘을 직접 날음으로써 우리의 꿈을 현실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급속한 항공기술의 발달은 오늘날 우주까지 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이들의 항공우주마인드는 높이 평가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 세계화와 지구촌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우리는 '세계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공식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가릴 것 없이 세계화라는 말을 강조하지 않으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세대로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 애매한 것은 '세계화'와 '지구촌화'를 혼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세계화'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Globalization'이라고 하면서 이는 마치 우리 나라가 '세계화'를 제일 먼저 주장한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된 까닭의 하나는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갑자기 '세계화'를 강조하자 당시 정부는 이를 대통령의 독창적인 정책 방향인 양 미화한 나머지 영어로 'Segewha'로 표시하기까지 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마치 1970년대 우리의 '새마을정신'이 우리의 고유의 정신으로서 세계로부터 높은 평

가를 받으니까 혹시 이를 흉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원래 영어로 World라는 단어는 '세계'로 번역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에 들면서 선진국들은 기존의 World라는 단어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Glob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서 Globalization(지구촌화)을 강조하여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World와 Global이 내포하고 있는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데도 우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세계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World)라고 하면 지리적 개념으로서 인간이 활동함에 있어서 지구를 절대 범위로 한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은 지구에 한정해서만 활동하며 상호 교류하고 관계할 수 있는 것이 지구를 벗어나서는 어떠한 활동이나 관계를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는 지리적 개념이 밑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역사적으로 부연해 설명하면 우선 고대 중국과 로마제국을 들 수 있다. 중국은 예로부터 고대 선진국으로서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그 중심에는 야만족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동쪽은 동이(東夷), 서쪽은 서용(西戎), 북쪽은 북적(北狄), 그리고 남쪽은 남만(南蠻)의 오랑캐들이 살고 있다고 범위까지를 세계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중화사상이라고도 한다. 또 로마는 로마제국을 세계로 인식하고 로마의 세력이 미치는 끝인 동쪽을 아시아라고 하였고 세계는 로마의 패(Pax Romania)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구촌화라고 하면 인간의 활동이 지구를 벗어나 우주공간 및 지구 외의 다른 위성들과의 활동관계를 전제로 하며, 우주세계에 있어서는 지구를 다른 위성들과 비교할 때 지구는 서로 밀접하고 동질성이 높은 하나의 마을이나 촌로 볼 수 있다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Globalization은 '세계화'라고 하고 보다는 '지구촌화'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개념이며, 이는 어디까지나 우주화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과학기술의 발달, 특히 항공우주개발에 따른 개념과 마인드가 밑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국제화와 지구촌화

우리는 지구촌화(세계화)를 설명할 때 국제화와 비교하여 그 차별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이 지구촌화를 강조하다가 이를 재강조할 때는 '우리가 지금 지구촌화에 현명히 대처·대응하지 못하면 마치 100년 전의 조선조 말과 같은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한다.

우선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라고 하면 나라와 나라 간의 교류와 협력을 전제로 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기 국제화는 무엇보다도 항해술의 발달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항해(해양)마인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국제화 시대의 특징을 경제·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산업화 사회로서 대규모, 대량 생산인 공장 굴뚝경제로 요약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는 국가중심, 민족중심과 국경을 전제로 한 배타적 국제관계였기 때문에 자국의 군사·안보인 국위정치(High Politics)를 경시한 하위정치(Low Politics)보다 우선시 하였다. 따라서 지구를 하나의 촌이나 마을로 인식할 수 없었다.

결언 : 지구촌화의 갈등은 우주마인드로 해소

국제화의 산업사회가 지구촌화의 정보화 사회로 전환하게 되는 원동력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항공기술과 컴퓨터의 획기적인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의 위력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부터 아이디어의 창출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정보화나 컴퓨터를 이렇게 급속히 발전시키게 한 마인드는 바로 항공우주마인드가 그 기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지구를 일일생활권으로 축소시켜 하나의 촌이나 마을화하고 있고 나아가 우주공간의 위성을 예까지 인간의 생활을 점근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구촌화 시대를 정보화사회, 지식기반사회, 아이디어사회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국제화 시대를 Analogue



백 봉 종(97)
동의대학교 정외과 교수

에 비하면 지구촌화 시대는 Digital 또는 Internet시대라고도 하며,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지구촌화를 국가·민족 중심에서 무국경(Borderless)과 비정부기구(NGO)시대, 군사·안보의 고위정치에서 경제우선의 저위정치 시대 등으로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구촌화 시대의 특징과 우리의 추구에도 불구하고 이의외로 이윤배반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아니라 지역주의(Regionalism)의 강화이다. 지구촌화 시대로 인하여 지역 내의 국가간 국경은 점차 희미해지며 사라지고 있는 반면에 타지역간의 벽(경계선)은 더욱 높아지며, 지역외간에는 배타적인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간에는 작은 지역적 갈등과 분쟁들은 오히려 국제화 시대에서보다도 더 빈발하고 그 강도도 강하다. 그 대표적인 갈등과 분쟁의 예로서는 군사·안보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환경문제를 하나 더 들어 볼 수 있다.

모든 환경오염의 발생은 선진국에 의한 것이든 개발도상국에 의한 것이든 막론하고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류전망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뿐인 지구, 또는 '우주선 지구호'가 오염으로 생태계와 자연계의 균형이 파괴되면 이를 대체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 상충으로 해결보다는 갈등만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한정된 지구 내에서 이러한 갈등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현 시점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우주개발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점은 현재도 우주분야에 있어서는 인공위성 등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무국경 시대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구촌화는 우주마인드와 조화가 이루어질 때 인류의 미래는 보장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會員寄稿

성무대 단상(斷想)

이상기(2기)
외대 명예 교수

1. 국방 전문가의 화두(話頭)

군의 전력은 사람과 장비로 이루어져 있다. 우수한 장비와 이를 다루는 우수한 인원은 현대전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요체(要諦)임은 아무도 이의(異義)를 달 수 없는 당연한 명제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취하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한 끝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질의 문제이다. 비슷한 문제로서 전쟁 발발의 예측 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이는 60년대 미국의 Rand Corporation에서 취급한 과제였다. 이 과제 의 사발점은 전쟁의 발발--상호 과격한 언사의 교환, 위협, 폭탄 투하와 발포의 과정을 겪는--이 우연적(偶然的)인 요인(예를 들면 국가 지도자의 성격과 순간적인 기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우연론과 어떤 광의(廣義)의 사회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형태(Pattern)가 존재할 때, 전쟁의 발발은 불가피하다는宿命론(宿命論)의 두 정반대되는 입장간의 논쟁에서 비롯된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전쟁들의 발발 요인에 대한 양측 주장과 해석은 모두 근거가 있어 우연론과宿命론의 토론은 한없이 계속될 뿐 결론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전쟁 발발의 예측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우연론은 당연히 제외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연론은 전쟁 발발의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일은 인간행동 유형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더 많은 자료로서宿命론을 보강하는 것이다. 이 야기가 옆길로 흘렀지만, 요는 해답이 뻔한 우문(愚問)이나 해답이 없는 난문(難問)이 사물의 본질을 규명하거나, 혹은 새로운 유익한 이론이나 원리를 발견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문제와 이를 문제가 함축하는 의미(Implications)에 대해서 부단히 연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Thinking the Unthinkable(혹은 Pondering the Imponderable)의 자세이리라.

장비와 인원의 둘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 이 문제에 관한 수학적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 글의 의도하는 바가 아니고, 이 글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도 없다. 필자는 두 가지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성찰하고자 한다. 한국 동란 발발 초기 소련제 전차와 Yak전투기로 무장한 인민군의 공세 앞에 국군은 속수무책이었다.

그 당시 우리 대응자들은 육탄으로 적 전차에 대항하였고 L-type 경비행기 후방에서 수류탄을 투척하며 대항했지만, 이는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다. 장비의 우열이 승패를 갈랐다. 전쟁의 승패가 '사람' 이라기보다는 우수한 장비에 달려 있다는 것이 우리가 6.25 초기에 얻

은 뼈저린 교훈이다.

상황을 우리가 처한 현실적으로 돌려보자. 오늘날의 소위 무기체제는 최첨단 과학 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으며 그 성능이 가공할 만하다. 그런데 이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관련 구성 요소를 담당하는 요원들의 높은 수준의 자질과 전문지식 및 오랜 기간의 훈련과 경험을 통한 고도의 숙련이 필수적이다. 고성능의 '장비'와 이의 작동에 필수적인 우수한 '사람'--이 등식(等式)에서 우리는 사람과 장비,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등식에서 두개의 추를 결정적으로 '사람' 쪽으로 기울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장비'의 개발과 선택을 '사람' 이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6.25 때와 같이 외국의 원조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 국력 신장은 국방 예산으로 필요한 장비의 확보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오늘날의 첨단 무기는 비싼 것이 특징이다. 우리가 도입한 F-16은 대당 가격이 3000만 달러에 달하고 함안의 차세대 전투기 F-X는 1억 불 수준의 고가 장비이다. 따라서 적절한 장비의 선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이 선택을 변하는 시대 상황에 알맞은 공군 교리, 전략 전술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 선택에 있어서도 한 가지 고려사항은 가용 자원이다. 이렇게 볼 때 군 경력개발 경쟁의 업으로 삼는 직업군인, 특히 국방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이를 실행하는 군 지도자들의 책임은 막중하다.

여기에 군 사관학교 존립의 당위가 있다. 공군사관학교 없이 오늘날과 같은 형식과 실질이 갖추어진 공군, 발전의 잠재력이 기대되는 공군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이다. 그러나 한때 사관학교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없지 않았고 이들의 주장은 나름대로의 논리와 경험을 토대로 한 하나의 선택일 수 있었다. 전쟁의 와중(渦中)에서 전투의 승패가 긴박한 마당에 담당 전력 증강에 보탬이 되지 않은 후방 부대를 많이 거느린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치스러운 것이다.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전투조종사인데, 조종사는 조종 간부 후보생을 모집하여 조종사로 양성시키는 것이 시간상으로는 경비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측면이 있다. 실제 공군에서 이 제도가 채택되었고 많은 조종사들이 여기서 나왔다.

이들은 동안 중 전투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도 올렸고, 몇몇의 최고 지휘관도 이 제도에서 배출되었다. 이 경험을 토대로 1960년대 초반에 공군의 조종사 양성은 조종 간부 제도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 뒤집어 말하면 사관학교 무용론 내지는 회의론이 군의 일각에서 회자(膾炙)되었다.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고 또한 공

군의 역사와 현재를 비추어 볼 때 이미 결론이 난 문제이기 때문에 길게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문제는 오늘날, 그리고 미래의 공중 지휘관을 길러 내는데 어떤 것이 바람직한 제도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군사관학교 위원회(The Service Academy Board)가 내린 결론은 3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유지하며, 사관학교의 교육은 우수 민간 대학의 학사 과정에 버금가는 일반 지식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군사관학교에서 비행 훈련이 입관 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이다. 2차대전 직후 미국에서는 전쟁에서 얻은 경험이 비추어 직업군인 양성에 대한 사관학교 교육의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했고 여러 가지 직업군인 양성 안이 백가쟁명(百家爭鳴)식으로 주창되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 문제의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군사관학교 위원회(The Service Academy Board)를 설치하여 군, 민간의 교육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위원장에 Colorado 주립대학의 총장이 있었는데 실제 회의 주도는 부위원장인 Columbia 대학교 총장인 Eisenhower 장군이 하였다. 이 위원회의 보고가 된 미국 사관학교 제도의 근간이 된 것이다.

필자는 창설 초기 공군을 영도 하신 선배들의 높은 식견(識見)과 미래를 예측하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혜안(慧眼)에 대해 찬탄을 금할 길 없었으며 그분들의 열단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공군사관학교의 오늘을 우연의 소산물이 아니다. 전투가 한창인 전쟁 중에도 사관생도는 안전한 후방에서 정해진 기간에 한치도 어긋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사관생도 1기가 소정의 교육 기간 2년을 채웠고, 2기는 2년 9개월, 4기부터는 4년제로 바뀌어 졸업과 동시에 이학사 학위를 수여받게 되었다. 이와 대조되는 경우를 육군의 예에서 볼 수 있다. 사병이 나자 육군사관학교의 생도 1기와 2기는 전원 일선에 투입되어 총 한방 제대로 쏘아보지 못하고 전멸하다시피 되었으며, 1952년 봄 진해에서 다시 문물 열 때까지 육사는 간관조차 자취를 감추어 버린 것이다. 군 전체 발전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가는 훗날 드러난다. 농부는 굶을지언정 종자씨를 아껴 둔다. 산화한 젊은 생도들의 구국 충성과 용기에 머리 숙이면서도 군의 장래를 위해 이들이 갖는 의의를 제대로 파악 못한 지휘 계통에 대해 일말의 아쉬움을 금치 못한다.

2. 생도 시절

필자는 1.4 후퇴 직후 사관학교에 입교 '53년 10월까지 생도 생활을 하고 '57년 11월 교수부 교관으로 임명되어 다시 사관학교와 인연을 맺고 '79년 4월까지 근무했다. 구체적인 일시는 기억하기 힘들지만 몇 가지 생각나는 일들을 적어 본다. 필자의 생도 생활에서 힘들었던 경험은 별로 생각나는 것이 없다. 사관생도 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배고픔과 고된 훈련을 견디어 내는 일이다. 배고픈 문제는 대개 입대 초기에 일어나며 3개월이 지나 군 생활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다행히 필자는 집에서 인편으로 가끔 송금을 해주었기 때문에 먹는 것이 불편을 겪지 않았다. 고된 훈련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필자의 몸이 꽤 강인했던 모양이다. 얼마 전 동지식 몇 사람이 생도 시절을 회상하던 중 정복, 작업복, 체육복 등 네 가지 옷을 구입하는 체 M1 총을 '아웃 총' 자제로 마진(馬鎭)터널까지 무보한 일이 회자에 올랐다. 외출 나간 한 생도가 너무 덥다하여 군복 소매를 걷어붙인 것이 발각되어 밤은 전체기합이었다. 그 당시 적지 않은 생도가 기절했고 엷소리를 지르는 친구도 있었다. 그 당시 훈련 중 낙오는 생각할 수도 없었으며 또 주위에서 전우들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종성(예비역 준장) 생도가 힘들어하자 필자가 그의 총을 대신 가로채어 그의 부담을 덜어 주었다는데 나는 그런 사실이 전연 기억에 없다. 나는 어떠한 고된 훈련이나 기합에도 이를 정면으로 받아들여 소화해 내었고 인편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오리라 마음을 가다듬었는데 그날은 결코 오지 않았다. 사관학교 생도 생활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배고픔과 고된 훈련 때문에 별 지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필자에게 큰 축복이었다. 왜냐하면 필자는 지적 소양을 쌓는 일에 관심을 돌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해 시절 공사의 교수진(教授陣)은 지금도 가끔 화제에 오를 만큼 수준이 높았다. 높은 교수 수준의 수준은 초기 김포 시절부터 내려오는 공군사관학교의 전통이다.

1.4 후퇴 때, 서울대학교의 교수진을 감그리 공군에서 수용했으나 공군에는 인재가 넘쳐흘렀고 공사에도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다. 중학교(6년제)를 갓 졸업한 시골 촌놈이 한 교실에서 이분들과 마주보고 강의 듣는다는 것 자체가 꿈과 같았다. 나는 한마디도 농활세라 교수님들의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 그러나 강의 내용이나 전달 방식보다 이분들의 모습에서 풍기는 학구적 분위기에 필자는 더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필자의 사고를 살치게 했던 또 하나의 Source는 동료간의 대화이다. 동지생 중에는 경기, 서울, 경북 등 공립 중학교 배제, 양정, 휘문, 중앙, 경신 등 사립 중학교 등 일류 학교 출신이 태반이었고 개중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의 재학 생도 많았다.

(6면에 계속)

(5면에서 이음)

이들과의 대화는 항상 즐거웠고 또한 여기서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 그 당시 Time 주간지를 읽는 친구가 몇 사람 있었는데 (누군지는 기억이 나지 않음) 나도 덩달아 그들을 따랐다. 외박이 있는 날, 부산 국제 시장으로 나가 미군 부대에 가서 흘러오는데 지난 잡지를 구해서 사진에만 의지하여 끄끙거리며 읽었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았다. 필자가 생도 시절부터 관심을 가진 것 중에 Einstein과 Toynbee가 있다. Einstein은 물리학 교과 김동배(金東培 : 2기 기공 장교) 소령의 특수 상대성 원리 강의를 듣고서부터 나의 관심을 끌었다. 나는 아직도 상대성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교관님의 강의하신 이야기의 줄거리는 기억되어 그대로 되살릴 수 있다. Toynbee에 대해서는 이창빈(李昌斌 : 예비역 대령)으로부터 이역사가가 쓴 Civilizations on Trial의 일본어 번역판을 빌려 본 다음부터이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두 석사의 이론과 인품에 대해 알려고 노력했고 또한 이해를 넓혀 갔다. 일관 후 1955년 도미 유학시는 도서목록에서 그 때까지 발간된 Last Name이 Toynbee와 Einstein인 저자의 책은 모두 샀다. 그 중에 Einstein이 쓴 The History of Music이란 책이 있었다. 나는 Einstein이 바울린 연주를 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라 이 천재의 넓은 교양에 탄복하며 이 책을 샀다. 얼마 뒤에 이 책의 상당한 부분을 (여자로) 읽었을 무렵, 책의 저자가 Albert Einstein이 아닌 다른 이름의 Einstein임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 나는 나의 열정함을 후회하기보다 이 책의 저자가 물리학자 Einstein이 아니었음을 안타까워했다. 이 책은 오랫동안 서가에 꽂혀 있다가 딸년이 음대에 입학한 후 그에게 선물했다. 물리학이나 역사학이 필자의 전공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Einstein과 Toynbee에 전공 못지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것은 성격 형성기인 생도 시절에 받은 동기부여(動機附與)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우리의 생도시절 공부할 시간은 태부족이었다. 초적으로 자습 시간이 1시간 가량 주어지지만 이것은 명목상의 자습 시간일 뿐이다. 식사 당번, 내무반 청소 및 사물함 정돈 등에서 시간을 뺏기고 나면 시간도 모자랄 뿐 아니라 40명 이상이 모여 있는 자습실에서 정신 통일이 어렵고, 따라서 자습 시간에 기껏해야 반성일지(反省日誌) 쓰는 것이 고작이었다. 자습의 다음이 점호인데 점호시에는 단체 기합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기 일췌하고 이것이 끝나면 소동(消聲)이다. 소동 이후는 잠을 자야 했고 --아마도 다음 날의 훈련에 대비하랴? --연등(延燈)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필자는 소동 후의 독서를 위하여 언제나 잡자리를 남들이 꺼리는 참가를 선택함으로써 복도의 불빛을 원용할 수 있게 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것이리라.

3. 사관생도 교육의 체계화와 대방동 시절

필자는 입관한 지 4년 뒤인 1957년 11월 교관 요원으로 모교인 진해 공군사관학교와 인연을 맺어 1969년 퇴출될 때까지 근무했다. 부인 당시 교장은 신상철 장군이셨는데, 장단기 교관 확보 계획,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교과 과정의 수립 및 이에 상응하는 교육 자재(실험실 장비)의 확충, 교육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서울 새 캠퍼스 건설 등 오늘날의 성무대 교육의 틀이 만들어졌다.

사관학교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 목표 달성에 충실한 교과 과정 둘째, 우수한 교관의 확보와 환용 셋째, 우수한 생도 확보와 동기 부여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걸쳐서 우리는 미국의 사관학교 제도와 미 공사의 교과 과정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 결과는 우리 사관생도 교과 과정 개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오늘날의 대학 교육은 전공 위주 교육에 치우친 나머지, 이공계와 인문계가 서로 분리 구획화(Coartmentalize)되어 양자간의 대화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날이 갈수록 우리가 당연한 문제는 과학, 기술, 경제, 정치, 언어, 심리 측면이 밀접히 연관된 복합체가 되어가고 있다. 이는 장래의 동량(棟梁)을 기르는 대학 교육이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제자들의 해답은 자연·응용계 과목과 인문·사회계 과목이 균형을 이룬, 소위 말하는 General Education의 도입이다. 장래의 공중 지휘관은 예를 들어 과학자·기술자와도 무기 체계의 개발과 성능 등을 심도있게 토론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무기 체계 확보와 관련된 정부 조직, 예산 제도, 사회적·경제적·국제적 고려사항을 이해하고 필요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된 공사의 교과 과정은 원칙적으로 General Education을 지향했다. 이 점은 교수부의 편성이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응용과학의 4개 부처로 된 사실에서 더욱 반영되었고 교과 과정에서 인문·사회학과 과목 대 기초·응용학과 과목의 비율은 원래의 30% 대 70%에서 45% 대 55%로 바뀌었다. 균형된 교과 과정은 좋은 뜻에서 생도로 하여금 두 개의 전공을 이수케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하면 전공이 없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용지물을 만들어낸다.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강 교육 과목(Enrichment Course Subjects)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전공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 또한 학업 성적이 탁월한 생도에 주는 석사 학위 취득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야심찬 계획이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의 미비와 생도들에게 주는 부담이 과중하다는 점에서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것이 당시 필자가 교육 현장에서

내린 자평(自評)이었다. 그런데 몇 해 전 우연히 모 비행단의 종교 행사에서 그 비행단의 단장교 마추친 적이 있었다. 초めに 접어든 장년(壯年)의 장군이 생도시절 배운 영시의 운을 형식을 줄줄 거침없이 외우는 것이 아닌가! Iambic, Trochaic, Dactylic, Anapestic... 등. 영시 개론(英詩概論)은 일반 교과 과정에는 없다. 따라서 이 과목은 보강 교육 과목이었음이 분명하다. 그 장군은 필자를 알아보고 반기는 뜻에서 생도시절 배웠던 것을 토해냈으리라 짐작한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정년 강직한 사람은 무엇을 가르쳤는지 과목 이름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데 수업 받은 생도는 30년 전에 들은 강의 내용을 --그것도 직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내용을--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한 개인의 특출한 기억력에 기인한다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보강 교육에 대한 새로운 기능성을 보여준다. 정보와 시대에 들어서 General Education의 개념이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는 요즘 40년 전의 교과 과정 개정 때의 감회가 새롭다.

장기 교관 확보는 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국내 민간 대학 파견, 군원에 의한 미국 대학(AFIT) 유학을 1957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의거 실시되었다. 단기 근무 교관은 각종 장교 후보생 중에서 선발했는데, 전국 유수 대학의 수제 졸업생들이 공사 교관이 되기 위해서 각종 장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이들은 전역 후 공사 교관 경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문민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이 된 이명현 교수의 약력이 신문에 소개되었을 때 '공사 교관 역임'이란 경력이 그 중의 한 줄을 차지했다. 필자와 함께 성무대에서 근무한 교관들은 대부분 바로 혹은 도미 유학을 거쳐서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필자는 1967년 4월 교수부장의 보직을 받게 되어 그 후 약 2년간 교수부 운영을 책임지게 되었다. 여태껏 수업 준비와 연구 등 좁은 시야에서의 수동적인 활동과는 달리 공군 전체에서 교수부가 갖는 의미, 교관 활용의 방안 등 넓은 시야에서 사물을 보는 안목이 필요했고 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공사 교수부의 위치와 공간 환용 책에 대한 필자의 생각과 실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 대학과의 교류 강화

원칙적으로 군 사관학교의 교관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반 대학과의 교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하다. 나는 연구 분야에 있어서 케이스.바 이.케이스로 교관의 일반 대학의 연구 계획 참가를 허가하였다. 그리고 보강 교육 과목을 강사로 대학의 원로 교수를 모셨는데, 양주동(동국대), 김종길(고려대) 선생님이 생각났다. 이분들은 얼마 되지 않는 강사로에도 여김없이 먼길을 시간에 맞추어 와 주셨다.

나. 무기 체계 과학 연구 사업

장기 교관 확보 계획의 결실로 60년대 후반에는 많은 수의 교관 요원이 민간 대학 파견 교육을

마치고 돌아왔고, 그 가운데는 상당수의 미국 대학원 석·박사도 끼어 있었다. 본인은 이들의 잠재 능력을 국가를 위해서 발휘하고 이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연구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관심있는 교관들과 난상토론(Brain-Storming) 끝에 네 가지 Projects를 선정하였다. 이들은 ① 인공위성 관측, ② 로켓 개발, ③ ECM 계발 연구이었으며 네번째 사업은 지금 당장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리는 사업 계획서와 Briefing Charts를 마련하여 공군 본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과학기술처로 들고 가서 여러 연구 조장관을 앞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무모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다행히도 이 연구 사업은 승인을 얻어 '68년도에 900만원의 연구비를 탕내는데 이는 과학기술처에 배당된 총 연구 지원비가 3억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액수였다. 이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다음 해에도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필자는 '69년 초 사관학교에서 전출되었다. 지금까지 기억으로는 육사에서 심하게 방해하였는데 끝내는 국방과학원의 발족으로 모든 연구 사업이 일원화되었다.

다. 공군(혹은 국방) Think Tank의 역할의 가능성

사관학교 교수부는 여러 가지 분야를 전공하는 고급 인력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국방 정책이나 무기 체계의 효과적 운용, 전략 전술이 독립된 단일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의 통합체라 생각할 때. 공사교는 사관생도 교육과 전문 분야의 연구 활동 외에 군에 관련된 여러 과제를 연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본인은 미공군에서 설립한 Rand Corporation을 막연히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Rand의 조직이나 운용 방식 등에 대한 정보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다행히도 공군 도서관에서 군사 연구(일어 판 정기 간행물), Air University Quarterly Review, Air Force, Aviation Weekly 등 정기 간행물을 부정기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 김두만 장군이 교장으로 오시자 나는 교수부장으로 직접 대하는 기회가 많아져 자연 분야의 감화로 공군의 전략 전술 분야에 입문하게 되었다. 입문하게 되었다기보다는 반 풍수 격인 전략가 지망생이 되었다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지 모르겠다. 우리는 전투기에 의한 간접성의 공격, 적의 저공 침투에 대비한 Gap-Filler만 설치 등 공군 전술의 당면 과제에 대해서 토론했는데 필자는 Sounding Board, 역할을 하는 주로 듣는 편이었다. 김 장군은 공군이 가질 수 있는 결정적 수단으로써 전투기의 Nuclear Capability와 이스라엘 공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다. 우리의 우방이 결코 우리에게 해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필자는 자연적으로 핵 수단 제조에 대해서 아마추어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공군 도서관을 비롯해서 8군 도서관까지 살살이 뒤진 기억이 난다.

(7면에 계속)

(6면에서 이음)

이스라엘이 6월 전쟁에서 보인 전술도 훌륭하지만 아랍이 이스라엘을 말할할 엄두를 못내는 것은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결정적 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우리도 똑같이 결정적인 능력을 가져야 한다. 필자는 공군 도서관의 한 책자에서 핵 폭탄 개발에 약 4 억불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액수는 당시 우리 국력으로서는 상당히 부당이 가는 액수였지만 꼭 필요하다면 감당할 수 있는 액수로 판단되었다. '67년 겨울 공화당의 실력자이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두만 장관에게 국방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다. 나는 그해 겨울 내가 선발한 몇 사람의 교관들과 교장실에서 약 일주일간을 철야하면서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그 보고서에서 건의한 사항 중에 ①핵 개발의 필요성, ②국방과학연구소의 설치, 이 보고서는 대전 총신의 국회 국방위원장 명의로 이를해 보 "국방의 제 문제"란 표제의 책자가 출간되었는데 이 시기는 요즘 알려지게 된, 박 대통령의 핵 개발 결정 시기보다 훨씬 앞선다. 박 대통령이 이 보고서를 읽고 그것이 핵 개발 결심의 계기가 된 것인지, 판단에 도움이 된 것인지 지금에 와서 알 길이 없다. 박 대통령이 전연 이 보고서를 접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에서 안전보장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고서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보고서에서 건의한 사항이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 후 국가 시책으로 나타나고 우리들의 연구와 판단이 높았고 시의적절했다는 것이다.

4. 창공의 매력과 가능성

'66년 10월경으로 생각되는데 필자가 사관학교 작전교육처장으로 보임된 지 얼마 후의 일이다. 합참대학이 창설되어 교관단(教官團)이 우리 학교에 내방했다. 학교를 소개하는 브리핑이 끝나고 브리핑 창공이 "혹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하고 내방객들에게 의례적인 말을 청했다. 그랬더니 교관 단장이란 사람이 의외의 질문을 했다. "역사적으로 우리 나라 역사에서 육군에는 을지문덕, 연개소문, 계백과 같은 본받을 만한 명장이 있고 해군에는 이순신 제독이 있는데 공군에는 이에 해당하는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약간 악의가 섞인 고의적인 난문(難問)으로 들렸다. 브리핑 창공이 어색하게 머뭇거리자 필자가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여 대답했다. "불행히도 을지문덕이나 이순신의 시대에는 공군이 존재하지 않았습디다. 그러나 만약 그 시대에 공군이 있었다라면 아마도 분명히 이분들은 공군 군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참석한 분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나는 난처한 질문을 재치

있는 말장난으로 멋지게 모면했다고 자위(自慰)했다. 그러나 공공이 한 말을 되짚어 보아도 모르게 명언(名言), 아니 만고의 진리를 읊은 격이 되었다. 시(時)의 고금(古今)이나 양(洋)의 동서(東西)를 막론하고 거침없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푸른 하늘에 매료(魅了)되지 않는 자 그 누가 있었던가? 하물며 용기 있는 자에 있어서야! 나는 진정으로 믿는다. 당시에 공군이 존재했다면 을지문덕이건 이순신이건 푸른 하늘이 주는 매혹을 결코 뿌리치지 못했을 것을...

푸른 하늘에 매혹되고 그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는 정신을 우리는 Air-mindedness 또는 Air Force-mindedness라 할 수 있다. 미 공군사는 Air-minded 한 하늘의 사나이들이 육군과 해군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실현시킨 역사이다. 1차 대전까지 사람들은 전쟁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고정 관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Billy Mitchell은 전면전(Total war) 이론을 내세워 공군의 독립을 요구하고 앞으로의 전쟁에서는 공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예언했다. 비록 Mitchell은 불행하게 군 생활을 마감했지만 그의 사상을 신봉하는 후계자들이 줄을 이었다. Mitchell의 이론이 구현되는 데는 20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오늘날, 미 공군은 명실상부한 미국 방위력의 주축이다. 육·해군은 국지전과 제한전에서 역할을 찾고 생존을 위한 고투(苦鬪)를 계속하고 있다.

Air-mindedness! 이것이 사관학교의 모든 교육, 모든 공군의 활동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사관을 단다면 Air-mindedness의 자질을 모든 인간에게 생득적(innate)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것은 학습으로 얻어진다고보다는 전염적(Contagious)인 성향이 강하고 어떤 계기가 주어질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 하늘이 좋아서 하늘에서 숨진 한 조종사의 죽음을 추도하는 Yeats의 시를 소개한다. 이 시는 필자가 애송하는 시 중의 하나이다. William Butler Yeats(1865~1939)는 애란(愛蘭) 태생 영 시인으로 금세기 전반기의 가장 위대한 시인 중의 하나로 추앙 받는 시인이다. 시인은 시대의 흐름을 누구보다 앞서 포착한다. Yeats는 한 전사한 조종사의 입을 통하여 Air-mindedness를 노래하는데 시인 스스로가 하늘을 동경하고 매력에 심취하지 않고 있는 어찌 이 시를 읊을 수 있었겠는가.

이 시의 주인공 Major Gregory는 Lady Gregory의 외동아들로 1차 대전에 영국군 조종사로 참가하여 적과의 공중전에서 산화했다. Lady Gregory는 Yeats와는 애란 문학 운동의 동지요, 후견인이었다. 부호인 Lady Gregory는 자기 저택 일부를 문인들에게 제공하여 그들의 창작 활동을 도왔는데 Yeats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시에도 나타나 있지만 애란 사람은 Major Gregory는 영국이 싸우는 전쟁에 나갈 필요도 의무도 없었다. 이것은 애란국이 영국의 통치하에 있다가 1차 세

계대전 후 자치령이 되고 1937년 완전 독립된 점에서도 쉽사리 짐작이 간다. 또한 그는 부장 집 외아들로 안이하고 평탄한 생활이 보장되어 있었다. 그런데 왜 그는 이것을 마다하고 전쟁에 나가 산화했을까? 하늘이 부른 것이다. '혼자만이 느끼는 희열에 대한 충동이 그를 구름 속의 광란 속(공중전)으로 그를 내몬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저울질한 다음 결론을 내렸다. 하늘에서의 생사가 교차하는 멋진 장에 비해 평탄했던 과거와 보장된 미래는 아무 의미없는 것일...'

여기에 시의 원문을 게재하고 해독이 어려운 이를 위하여 출 역을 첨가한다. 시에 나오는 Kiltartan은 애란의 한 지명이다.

An Irish Airman Foresees His Death
- In Memory of Major Gregory -

by William Butler Yeats
(published in 1918)

I Know that I shall meet may fate
나는 저 구름 위 어딘가에서
Somewhere among the clouds above ;
나의 운명과 맞닿을 것을 알고 있고
Those that I fight I do not hate,
나의 적을 미워도 하지 않고
나와 지키는 이들을 사랑하지도 않소
Those that I guard I do not love ;
내가 지키는 이들을 사랑하지도 않소
My country is Kiltartan Cross,
나의 고향은 킬타란의 작은 땅
My country men Kiltartan's poor
나의 겨레는 킬타란의 가난한 백성들
No likely end could bring them loss,
승패의 결과가 그들로부터 무엇을 앗아가거나
Or leave them happier than before.
그들을 이전보다 행복하게 하지 않을 것 같소
No law, no duty bade me fight,
국법이 나에게 싸울 것을 명령하지 않았소
No public men, no cheering crowd,
정치가가 갈채 하는 군중은 더더욱 아니었고...
A lonely impulse of delight
희열의 고독한 충동이
Drove to this tumult in the clouds ;
구름속의 이 광란으로 내 몬 것이오
I balanced all and brought all to mind,
나는 모든 것을 저울질하고 헤아려 보았소
The years to come seemed waster of breath,
다가오는 세월이 시간의 낭비 같이 보였고
A waste of breath the years behind
무의미하게 보인 시간 또한 지난 세월이었소...
In balance with this life, this death,
바로 이 삶, 이 죽음에 견주어 볼 때

애란(愛蘭)의 조종사가 그의 죽음을 예견하다.
- 구레고리 소령을 추도하며 -
R. B. 예이츠

5. 에필로그

원고 청탁을 처음 받고 쓰기를 치일피일 미루어 왔다. 20년을 훨씬 넘긴 공군 현역 시절이 아득하게 느껴졌고 남들에게 들려줄 만한 이야기 거리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글을 쓰기 시작하니 현역 시절에 있었던 일, 느꼈던 일이 많이 머리속에 되살아났다. 이들 사건과 생각들을 정리하여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를 풀기를 세우는 데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Word-Processor의 Key를 두드렸다. 이 글을 쓰면서 새삼 알게 된 사실은 나는 공군 시절 많은 훌륭한 분들의 지도 편달과 감화를 받았으며 오늘의 필자가 있게 된 것도 이분들의 덕택이란 사실이다. 생도 시절 우리들 훈도하신 박익선 장군, 나에게 기대를 걸고 향학의 길로 인도하고 돌봐 주신 형님 같은 라춘국 대령, 도미유학을 가능케 해주신 장지량 장군,

덕망과 넓은 도량으로 나를 아껴주신 김성룡 장군, 공군 전술을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나를 사비비 전락가 수준으로 만들어 주신 신병의 조인(舟人) 김두만 장군 ... 그 외 모든 은사와 선배들에게 큰절을 올리고 동료, 후배들에게 감사한다. 끝으로 신상철 장군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장군님은 초급장교 시절 내가 목표로 한 군인의 귀감이었다. 사관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행사에서 -- 특히 교육 운영 위원회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예나 지금이나 그와의 대화는 생산적이고 즐겁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 장군과의 대화에서 느끼게 되는 것은 그의 확고한 국가관, 정직성 그리고 태산 같은 소신이다. 나는 그를 대할 때마다 부족함을 느꼈고 새로운 목표를 찾았다. 사관학교에서 장군이 비교적 오래 계심으로써 성무대 교육의 기쁨이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會員寄稿

星武臺·星武會 隨想

손주현(1기)

- 1. 近 10年만에 陸·海·空軍 三軍士官學校 體育大會가 다시 열리게 되어, 50年代 中期부터 몇 십년 동안, 서울의 城東原頭(東大門運動場)를 나라와 겨레를 지키는 士官生徒들의, 嚴格한 秩序와 規律下에서 용광로보다 더 뜨겁게 들끓는 熱情과 隨魂의 祭典을 보아온 年輪 70代의 白髮이 된 오늘날 낡다는 感慨를 느끼면서; 모처럼 大統領계에서도 바쁜 國事의 틈을 내시어, 大會中間에 參席하시고 士官生徒들의 손을 잡고 激勵과 致辭를 하여 주신데 對하여 士官出身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 2. 大會 마지막날 저녁,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星武會)가主催하고 空士 2期 會長團이 支授하여 校長 및 幹部 將校와 選手들을 주로 한 士官生徒 등 約 100여 명과 함께 空軍會館에서 어떤 모임보다도 흐뭇한 會食에 參席하게 된 것은 近來에 더 없는 나의 큰 기쁨이었으며, 그 자리에서 小生이 星武臺와 星武會의 團結과 健闘·發展을 爲한 祝杯를 들면서; "나의 生命의 源泉은 나의 父母이며, 나의 人生의 原點은 空軍士官學校"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3. 動機가 어떠하였든, 萬 18세에 空士에 入校, 다음해에 6·25 戰爭, 戰爭 중에 거듭된 移動과 轉進, 그리고 戰術支援 活動과 訓練 教育의 並行 끝에 가까스로 51年度에 任官하여 備戰教育과 飛行訓練, 出擊과 또 다른 訓練 등을 거쳐서; 初級將校에서 領官級(少領·中領) 將校가 되면서부터(비록 充分한 資質을 갖추어 주지 않았으나, 正規士官 出身 將校로서 空軍에서의 立地設定을 어떻게

- 해야 하는나를 생각하기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年齡 28~29).
- 4. 大部分의 士官出身 將校들은 空軍의 戰術 運用 分野에서 주로 實務面에서 나름대로의 實質的 努力과 貢獻을 하여왔다고 自負합니다.
- 5. 國家와 民族은 士官學校를 세워 훌륭한 士官을 養成하여 그들에게 國家와 民族을 지키는 忠誠스러운 任務와 責任을 다할 것을 要請하고, 그 士官들은 이에 無限忠誠을 다하여야 함은 當然한 일입니다.
- 6. 英語의 Academy, 惑은 Academic인 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뜻이 담을 것으로 여깁니다.
 - 1) Special Instruction/Training in s Subject(軍·學術·藝術 등).
 - 2) Areas of Study that a not Primarily Vocational or Applied.
 - 3) Hypothetical(not Practical).
 - 4) Apart from Worldliness or Commonsense 등).
- 7. 卽;
 - 1) 正規 士官學校는 國防을 爲한 特殊 教育訓練 機關이며,
 - 2) 基本的으로 現實 營利生活를 爲한 職業的·實用的 教育機關으로 볼 수 없고,
 - 3) 또한, 一般 世俗의 常識·規矩와 동떨어진 忠誠·義務·責任(Royalty·Duty·Responsibility)을 德目으로 하는 國防을 爲한 教育訓練을 하는 곳이라 認識되어 온 것이, 古今東西를 莫論하고 傳統的으로 이어 온 概念이라고 여겨집니다.
- 8. 그러므로 士官은 獻身を 다함

- 으로써 名譽와 矜持를 갖추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獻身은 나라와 겨레를 지키기 爲한 것이며, 이는 곧 우리의 어머니, 딸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 9. 나라와 겨레가 굳건히 설 수 있기 爲해서는, 最小限 3個의 根幹이 되는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2個의 기둥이 설 수 없으며 1은 또한 기둥이 많을수록 더욱 좋고, 美國 國防省은 5個의 기둥, 卽 Pentagon으로 象徵됨). 그 3個의 가장 基本的인 나라의 기둥은, 教育과 經濟와 國防이라고 나는 생각하며, 士官은 바로 이 國防의 先鋒·核心 役割을 하여야만 합니다. 勿論 이 기둥의 바탕에는 國家·民族魂이 基礎가 되고 있습니다.
- 10. 나라에 危機가 오거나, 우리의 어머니, 딸들에게 危險이 닥쳐 오면 領土나 貴族의 子弟들, 아들들은 이를 지키기 爲하여 앞장서서 싸우러터 나가는 것이, 中·近世時代에도 東西를 莫論하고 지켜져온 傳統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境遇는 지난 몇 百年間에 있었던 나라의 危機中 이런 傳統이 덜 지켜지지 않았으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士官의 責任의 莫重함을 되새기게 됩니다.
- 11. 나는 空士 1期生 出身으로서, 軍生活中 비록 자랑할 만한 役割이나 位置에는 있지 않았으나, 나름대로 戰爭에 獻身한 實績을 쌓은 過程에서, 몇 번의 死線을 넘어 보기도 하였으며, 戰後에는 나에게 주어진 조그마한 領域內에서 힘에 褻한 責任을 하였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나만의 素朴한 自負와 矜持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 12. 空軍創軍 및 6·25 戰爭世代들의 희생과 貢獻은 決코 輕視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後輩들은 지난 50年間の 先輩들의 발자취를 冷徹한 理解로서 消化함으로 써, 現在와 未來의 發展을 爲한 所重한 밑거름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功過 共히).
- 13. 한편, 오늘의 空軍의 役軍들이 50年前에 우리가 直面하였던 바보다 더욱 苛酷한 挑戰과 試鍊을 겪게 될 경우, 50年 前의 우리들보다 더욱 슬기롭고 勇猛스러운 責任·使命의 先達와 희생으로서 이를 克服하리라 確信하며; 이들이 50年 前의 우리들이었다면, 우리들보다 더 잘 싸우어 國難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너그러움을 先輩들은 간직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14. Academy, Academic이란 말에는 傳統이라는 뜻이, 또한 숨겨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星武臺·星武會의 올바른 傳統의 再定立과 再認識이 切實하고 이것이 꾸준히 이어지게 될 것을 衷心으로 祈願합니다.
- 15. 1993년에 星武會(五星會)를 再建立하면서, 이를 發意, 推進하였던 1期에서 6期까지의 會長團 및 同門 同志와 함께 뜻과 힘을 모아서, 空士 初代 校長이신 故 金貞烈 將軍을 비롯한 몇 분 어르신께 우리들의 뜻을 말씀드리고, 따뜻한 懇切한 激勵의 마음과 말씀들을 받아서, 부질없는 말도 많은 空軍士官學校 總同窓會(星武會)를 正式 發足하였음을 다시 되새기면서; 全同門 兄弟들의 健勝을 빕니다.

(9면에서 이음)

지상에서는 공중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절대 진입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였으나 나의 판단으로는 50여대의 항공기 편대를 이끌고 다시 한 바퀴 돈다는 것은 분명히 사고를 자초하는 위험천만인 일로 판단하여 대단히 최종하오나 공중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는 계획된 경로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하니 지상 통제소에서는 팔짝 놀라는 음성으로 절대 안 된다고 저지를 시도하였으나 나를 따르는 50여대의 항공기는 묵묵히 사열대를 통과하였고 그 후 착륙할 때까지의 기나긴 시간 동안 아무도 말 한마디 없이 무거운 침묵만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나도 그날이 비행 생활의 마지막으로 결심하고 사고 없이 무사히 착륙하 비행이 끝난 것만으로 만족하며 모두에게 안전한 착륙을 강조하였다. 드디어 착륙 직후 경호실

장의 긴급 전화가 왔다는 것이다. 착잡한 심정으로 수화기를 건네 받았다. 자기가 지금까지 본 비행 중에 가장 뜻치 속하 비행이었다고 축하한다고 했다. 전화 수화기를 드는 순간과 놓는 순간이 바로 지옥과 천국으로 비교되는 절박하게 비행했던 심정이 하늘을 날아갈 듯 출가분한 심정으로 엔돌핀이 쏟아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홉번째는 비행대장 시절 F-5B로 야간 학생 훈련 중에 있었던 사례로서 주로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 중 N소위를 선정하여 야간 공중 조사를 실시하여 본 결과 귀한 시 유난히도 수원 기지의 활주로가 6개로 보였다. 활주로 2개, 유도로 2개, 양쪽 울타리 보안등 2개 등 6개의 조명이 모두 간격도 비슷하고 길이도 비슷하고 조명 강도까지 비슷하여 6개의 활주로로 착각하기 쉬웠다. 전방석 학생에게 활주로 정대를

둑바로 잘하라고 당부까지 하면서 나는 활주로 양측면을 살펴보고 고도 관측에 신중을 기하면서 착륙에만 전념하여 안전하게 접지를 하고 보니 갑자기 전방에서 강한 불빛이 보였다. 전방석 학생에게 앞에 보이는 불빛이 무슨 불빛이냐고 물으니 활주로 끝, 교량 표시등이라고 통탄지같은 소리를 하는 순간, 아! 나는 이제 비참하게 죽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 불빛은 조금 전에 착륙하여 유도대로 떨어진 L대위의 불빛이며 우리는 지금 활주로가 아닌 유도대로 착륙하여 몇 초 후면 정면으로 충돌하여 2대의 항공기와 3인조의 조종사가 박살이 나는 장면이 영화처럼 환하게 머리를 스쳐가면서 유도로 오른쪽에는 개울이 있고, 왼쪽에는 페기된 F-86D를 세워 둔 것이 생겼다. 피할 길이 없었다. 다시 이륙을 시도하는 수밖에 없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두뇌의 프로그램에 따라

Throttle를 끝까지 밀어오르고 Stick를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잡아채는 동작이 기계처럼 순간적으로 이뤄졌다.

그때까지도 관제탑이나 활주로, 통제탑, 먼저 착륙한 L대위, 지금 태우고 있는 학생 조종사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평화스러운 상태였다. 어쨌든 무사히 이륙하여 공중에서 여러 가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착륙한 후에 학생을 대동하고 조금 전 착륙 지점했던 지점을 확인해보니 왼쪽 풀밭쪽 유도로 등 10개가 박살이 났고 바로 풀밭에 주기되어 있는 F-86D 상공으로 가까스로 이륙하여 다시 무사히 착륙한 것 이외는 의견상으로 아무런 흔적도, 항공기도 굵긴 흔적도 없게 깨끗하였다. 그야말로 천 우신조의 작품이었다. 다음날 아침 활주로 안전 점검 장교도 왜 활주로 등 10개가 망가졌는지 이상한 일이라고 머리를 가웃

거렸고 나는 자초지종을 상관에게 보고 드렸으나 믿어지지 않는다며 믿으려 하지 않을 정도였다. 이렇게 나의 사연을 내담하던 체임탑 이야기는 계속되지만 지면 관계로 그만 줄이기로 하고 이러한 사례가 연재하는 누구에게도 있을지 모를 그러한 환경에 대비하여 앞날을 준비해 두는 것도 현명한 삶이라고 사료되어 본인이 체험한 몇 건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제 창군50주년을 넘어 새로운 전년을 맞이하여 앞날을 계획하는 우리의 앞길에는 어쨌든 게 사연을 넘나드는 불행한 사례가 절대로 없기를 바라며, 평안대로의 길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최신 장비와 첨단 무기, 더불어 몸도 마음도 늘 강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영광받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보다 소중하고 값진 항공 무사 시대의 삶을 창출하자는 것이다.

地獄과 天堂의 문턱에서

郭泳達
(예7기) 공군중장
전 국회의원

일생 동안 누구에게나 특히, 공중 근무 요원들에게는 死線을 체험하는 경우가 누구보다 많았다고 사료되며, 처음에는 두려운 생각으로, 다음에는 숙명적인 환경을 거쳐서 어느덧 사선은 연단의 과정으로 성숙하여 담대해지고, 이제는 언제나 준비하여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내에게도 비교적 많은 유사한 체험의 기회를 가졌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누구보다도 삶의 은총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대표적인 체험담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지난날의 많은 역경 속에서, 슬기롭게 견디어 내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을 보람과 긍지로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유사한 역경 속에서 살아남아,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고 먼저 가신 선배, 동료 후배들의 고귀한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자하는 것이다. 나는 일찍이 세 살 적에 먹지 못하는 병, 먹기만 하면 토하는 이름 모를 병으로, 결국은 굶어서 숨이 끊어져 산비탈에 내다버릴 장소에 다다라서 다시 생환함으로써 첫 판문을 통과하였으나 발육부진으로, 아홉 살에야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두번째는 6·25 피난시절 대전남쪽 들녘 농촌에서 새 새사람이 자원봉사로 농사일을 돕고 있는데 갑자기 전투기 두 대가 낮게 날아오기에 손을 흔들었다. 전투기는 굉음을 내며 급선회전하여 우리를 향하여 기총소사를 퍼붓기 시작하였다. 다급한 환경에 처한 우리는 눈두렁에 심어있는 풀나무 그늘 밑에 머리를 틀어받고 상황을 살펴보니, 두 대의 전투기가 각각 3회씩 기총공격을 퍼부어서 귀찮은 쪼이는 듯하였고, 옆굴에는 흙탕물로 뒤범벅이 되었다. 순간적으로 이대로 죽는구나 하면서, 전투기를 유심히 바라보니, 기총을 뿜는 것이 마치 나를 향하여 무지개를 뿌리는 것같이 탄도가 햇빛에 반짝이며 아름답고 영롱하게 보이게 되었다. 우리는 죽은 줄만 알고 다리를 꼬집어보니 감각이 없었고, 모두 살아나서 살피고, 모두 양쪽 옆으로 50센티 정도의 거리에 총탄으로 파여진 흔적이 있었고, 주변사람들은 눈두렁에 사람이 죽었다고 모여들기까지 하였다. 지

금 생각하니 그 전투기는 요란한 프로펠러 전투기로 보아 F-51 항공기임이 틀림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후 내가 전투기 조종사가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었다.

세번째는 사천기지에서 L-19 비행교육 중에 있었을 때, 당일은 나의 비행진도 평가 일로서, 당시 대장이었던 본호령 S소령님과 비행이 계획되어 모든 비행브리핑을 마친 다음 잠시 대기하는 중에, 갑자기 복통이 심하여 아무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급히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나에게 배당되었던 항공기는 벌써 다른 사람을 태우고 지상활주를 시작하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나는 오늘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며, 내 대신 이륙하는 동기생 Y소위 비행기를 몰고러미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러나 이어져진 일인가, 이륙직후 일선회를 하던 항공기는 장주를 이탈하여 공역으로 날아가지 않고, 활주로 끝 왼쪽 바닷속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이 장면을 확인한 것은, 여러 대의 항공기가 연속하여 이륙하기 때문에, 나 외에는 목격자가 없어서, 긴급히 관제탑과 작전실과 신고를 한 후에야 비로소 비행사고의 후속조치가 시작되었다. 모든 비행계획 기록부에는 당연히 나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심지어는 상부보고에도 내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그 달에 발간된 미사일이라는 공군지에도 나의 이름으로 죽음을 애도하는 기사가 실릴 정도로 절박한 순간의 사고였다. 비행생활 후 처음 당하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고를 목격한 그날부터 나는 나의 사생관이 "인생갈 5분 전"이라는 신념으로 확고하게 확립된 계기가 되었으며, 따라서 매년 6월 22일은 제2의 나의 생일로 그날의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네번째는 60년도 미국 Lackland 기지에서 Orientation 영어교육시설에 일 동안 못 먹고, 먹기만 하면 토하는 병이 또 발병되어, 무려 6회에 걸쳐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으나 원인 불명으로 치료를 못하고, 결국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하루는 하늘도, 사람도 보이는 것이 모두 색조롭게 보이더니(처음 본 黃天) 의식

을 잃고 졸도하여, 구급차에 실려서 귀국조치를 위한 마지막 정밀진단을 받게 되었다. 다행히도 결과는 급성 신장염(Kidney)으로 판단이 되고 다시금 생생하여 귀국을 유보하고 2년간의 비행교육과정에 합류하게 되어, 주ैन으로 부터 끈질긴 인생이라는 평을 받기도 하며, 하늘이 주신 3개월간의 급식 생존 체험도 하게 되었다.

다섯번째는 미국 조지아주 Spence 기지에서 T-37 비행교육 중이었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코피를 많이 흘리며 병원에 많이 가고 약도 많이 먹었으나 완치가 안되어 자주 코피를 많이 흘리는 편이었다. 물론 미국에 와서도 고단한 때마다 많은 코피를 흘리며, 하루는 T-37 단독비행 중에 공중에서 코피가 터져서 Mask에 가득하고 이고서 마셔도 계속 멈추지 않아서 비상착륙을 선포하고, 긴급히 귀환하여 정밀진단을 받았으나, 원인을 판명할 수 없어서, 영양실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Vitamin을 먹으라는 처방을 받았다. 그러나 나 개인적으로는 그저 나 개인적으로도 그대 교관이 가지 않고 근본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미국친구를 통하여 수소문한 끝에, 주말을 이용 1,500마일이나 떨어진 있는 IOWA주에 유명한 이민 후파 Uppdrاف 박사만 만나니, 깜짝 놀라시면서 당장 비행생활을 그만두면 안되며, 아니면 수술을 받고 다시 시작하라는 처방에 따라, 휴가기간 중 만사를 뒤로 하고 수술을 받은 후에 오늘날까지도, 코피 한번 흘리지 않고 살고 있다. 다시 그 박사님은 수술 후 일주일간의 입원이 요하나, 한국은 가난한 나라이니 3월 10일분의 약을 줄 테니 퇴원 후 스스로 조리하라는 고마운 분이며, 향후 10년간 수술결과를 보고 해달라는, 그야말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놀라운 성의에 감탄하며, 오랫동안 미국을 갈 때마다 찾아 뵈었던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다. 그 후 나는 거의 매년 현역으로, 그 당시 완쾌의 고마움에 작은 정성으로 보답을 해오고 있다.

여섯번째는 수원기지에서 F-86F 작전가능 훈련기간에 있었던 일로서, 그 날은 비가 많이 오고 날씨도 매우 좋지 않은 데도 동기생 K중위를 교관

으로 모시고 수원-대구-김해-광주-군산-수원으로 귀환하는 전전후 합법훈련임무로 이륙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구름 속에서 생명을 흘리며, 중간중간 행을 하던 중, 수원기지에서 긴급귀환 명령이 하달되었다. 긴급귀환 명령 내용은 국내 전 기지가 Below min 상태이니, 공중에서 가능한 비행장으로 착륙하라는 조언 아닌 막연한 조언이었다. 즉시 공중에서 확인하여 본 결과 대한민국 전기지가 착륙불가를 선언하여 갈곳이 없었다. 그래서 미군 기지가 장비도 최신 장비로 좋을 듯하고, 숙련도도 능숙한 관제사가 있을 것 같아서, 오산 비행장을 불러 착륙허가를 신청하여 보았더니, 역시 비행장은 착륙 불가하나 조종사가 원한다면 접근을 시도해 보고, 착륙 여부는 조종사가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이었다.

실상가상으로 그 순간 동기생 교관은 자기 항공기 항법 장비가 고장이 났으니 학생인 내가 구름 속에서 앞으로 나와 편대장을 하라는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쨌든 구름 속에서 위치 교대를 하여, 미군 관제사의 지시대로 오산 기지를 3회에 걸쳐 착륙접근을 시도했으나 비행장은 전혀 보이지 않고는 천지가 안개와 비와 구름뿐이었고, 이제 연료까지도 Min으로 바닥을 다 치고 있어서 한번만 더 접근해보고 안되면 270도 방향으로 상승하면서 10마일 밖에서 Ejection까지 약속을 하고 최후의 접근을 시도했으나 끝내 비행장은 찾지 못하고 활착 열려있는 地獄門을 향하여 출력을 증가시키는 바로 그 순간 어렴풋이 활주로 불빛이 희미하게 스쳐 가는 장면을 확인하고 컷머 힘을 다하여 활주로를 놓치지 않으려고 최대 출력으로 급선회를 하니 따라오던 동기생 교관은 비행기 떨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나는 결코 활주로를 포기할 수는 없었고 끝내 항공기 바퀴를 잡주기로 악착같이 접지시켜서 겨우 착륙을 했으나 관제탑에서는 그때까지 우리 항공기 위치가 어디 있는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올 정도로 컴컴한 그야말로 Cats & Dog(칠흙 같은 폭우) 상

태의 활주로였다. 오죽하면 활주로상에서 Canopy를 열고 고개를 좌우로 살피며 어디가 활주로이고 어디가 풀밭이고 어디를 개방하는지를 더듬거리며, 겨우 기지 지휘소를 찾아오니 많은 한·미 장병 및 민간인들이 모두 놀라서 우리를 도열해 줄 정도로 조금 전 오산 상공에 비행기 소리가 유난히 심상치 않게 들렸던 모양이었다(관제탑 비행했다고도 함).

일곱번째 대구기지에서 F-86 항공기로 10월 행사연습 비행 중에 있었던 일로서 지상에 임무 브리핑을 마치고 Line에 나가기 직전에 S선배께서 나에게 배당된 항공기를 바꾸자는 것이었다. 사실적으로 말이 안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나 당시만 해도 한참 하급자인 나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명령대로 바꾸고 보니, 그 항공기는 몇 번의 중병(중사고)을 앓아서 모두가 비행을 기피하는 #488 항공기가 아닌가! 순간적으로 기분이 몹시 상했으나 에라! 인명은 재천이라고 했으니 그대로 믿고 조심조심 비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비명 소리를 지르며 비행기를 바꾸어 타고 올라간 바로 S선배의 #470 항공기 엔진이 꺼져서 비상탈출한다는 절박하고 처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선배께서 왜 그때 비행기를 바꾸자고 했는지 아직까지 묻지는 아니했으나 다만 하나 남편이 아시는 일로 나는 그저 또 다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뿐이었다.

여덟번째는 대통령 임석 행사 축하비행 중 절박했던 사례로서 1975년 3월 대방동 공사출업행사에 대대적인 Fly-by 규모로 F-4, F-5, F-86 등 50여 대의 대규모 축하비행을 하는 날로서 당일 공중 시정 및 접근지역의 기상 상태가 대단히 불안한 상태로서 축하비행은 무리였으나 또 중지할 수도 없는, 참으로 난감한 현령의 기상 상태이었다. 당일은 대통령께서 매우 기분이 좋으셨는지 원고에도 없는 유시로 예정 시간이 훨씬 지나 공중에서 추가로 한바퀴를 돌고 막 진입 지점에 왔을 때 지상에서는 절대로 접근하지 말고 다시 한바퀴 돌면서 계속 대기하라는 지시였다.

空中散華한 전우들을 기리며!



丁海瑛(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예비역 기독교교회 회장
바울학회 공동회장

어느덧 "자유수호를 위한 6·25 한국전쟁" 발발을 맞으면서 세월의 무상함을 새삼 되짚게 된다. 약관 19세 전후인 97명의 사나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김포사관학교(김포공항 동문 앞에 위치했음)로 모여들어 조국의 하늘을 지키려는 부른 꿈을 가슴에 안고 입교식을 올렸던 일이 었고제 같은데 어언 古稀를 지냈거나 맞아들이고 있으니 感懷가 새로운 것이다.

그뿐인가! 공군 창군 50주년인 1999년 10월 1일을 뜻있게 보내고 난 시점에서 1기생의 史蹟이 곧 공군사의 주류를 이루어 왔음을 상기할 때 도도히 흐르는 역사 앞에 노병이 사라지기 전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쫓겨 보려는 심정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51년 7월 10일에 졸업과 동시에 공군 소위로 임관된 83명의 동기 중 유고 회원이 30명(36%)에 이르고 보니 그제 죄송하다는 생각이 현기증을 느낄 지경이다(생존자 53명 중 해외 거주 14명).

하지만 웃기를 여미고 덤으로 살아가는 여성임을 感之德之하면서 그 중의 전사자 4명을 비롯한 순직 산화자 3명 등 포함 7명에 대한 "추모의 글"만이라도 하나로 정리하여 후세에 남기고자 하는 충정에서 몇 줄 적어보기로 한다.

편의상 연대순으로 기술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다시 한번 음미하는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던 그것이 곧 고인들이功效를 드높이는 길이요, 우리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6·25 국난 이래의 제2 국난극복의 시급성이요, 실낱 같은 보람의 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시에 신임 소위가 된 1기생들의 비행훈련과 정비통신 등 특기교육은 그 때부터 본격화되었다. 장교 대우를 받아 가면서 실기교육에 들어간 것이다. 이미 생도 때 초등 비행훈련 과정에서 적성과 신체적 조건 등으로 그 진로가 분류되어 훈련에 들어갔는데 기술공군의 특성상 공군력의 기량과 기술이 습득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공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조종훈련 과정은 연습기의 부족으로 G-Class A반 : 13명, B반 : 10명, H-Class : 11명 등으로 나누어서 F-51 전폭기 비행기량을 쌓아 총 34명이 단계별로 실전에 투입되고 있었다.

그 첫 출격은 G조-A반이 '52.12.13., B반이 '53.1.23., H-조가 '53.4.6. 이고 휴전시까지의 총 출격회수는 1,640회로서 그간의 전사자는 4명에 이른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비행교관으로 2명(백경환, 김복학), T-6에 의한 FAC 작전에 2명(손주현, 김도영) 등 4명의 조종사와 정비통신 등 각 특기별 동기들의 참전도 더불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다만 우리 모두를 함께 떠날고 있는 7명의 공중산화자들이 마치 북두칠성처럼 매일같이 별자리를 옮겨가며 지금도 찬연히 그 빛을 발하고 있다는 점을 자랑하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공교롭게도 비행훈련 과정에서 1명의 값진 희생자를 먼저('53.1.13.) 내고 출격작전에서 4명('53.3.6., '53.4.23., '53.6.13., '53.7.18.), '53년 7월 27일 휴전 후 공공비행 훈련 중 순직 1명('55.7.26.) 비행훈련 중 교관 순직 1명('59.6.22.) 등 모두 8명 중 散華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조국을 지키며 목숨을 깨끗이 하늘에 던지고 있음을 본다.

이제 저마다 웃기를 여미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와 체취를 되새겨 가면서 불과 3년 7개월 내지 10년간의 우정을 기리며 영민하신 남들의 안식을 기원하기로 한다.

▶ 車 鎮 駿 大尉

1953년 1월 13일 마산 상공에서 F-51 단독비행 훈련 중 空中散華 - 해상에 추락하여 첫번째 순직함으로써 자취도 없이 사라져 신조차 찾지를 못함(H-Class).

이때 1기생 중 '52년 12월 13일에 첫 출격한 G-Class A반 13명이 강릉기지에서 연일 실전에 투입되고 있어서 전전공공하고 있었는데 난데 없이 사전 훈련기지에서 먼저 비보가 날아들어 전우들을 발라게 하였다. 이는 공중비행 생활이 항상 위험부담을 수반하고 있음을 웅변해주는 첫 희생자로 기억될 삼직직 순직이다. 그는 흰철한 키(172cm)에 약간 네모진 턱을 한 강한 얼굴이 특징이었으며, 펄벅(강한 주동) 태생인데다 강한 인상을 풍기는 남자다움을 표출한다. 별명이 "스마트라"로 통할 정도였다.

그리고 김포시절 김중보(예) 소장) 동기가 구대장 밧다에 팔이 부러져 고통이 심하자 나무반 열자에서 義憤心을 심분 발휘하여 보살피던 그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아무튼 차대위가 먼저 저승으로 가버린 까닭은 무엇일까? 자기를 거울삼아 다시는 그와 같은 사고를 내지 못하게끔 경계해 주기 위한 犧牲打를 처낸 셈이 아닐까? (유사한 비행 사고는 재발하지 않음) 한편 한

쪽 다리를 저는 누님(차유선 여사)이 이태원에 혼자 사시면서 협송일에 국립묘지(西12묘지-15)를 70년대까지 찾아주셨는데 그 후로는 소식이 묘연하다. 그저 두손 모아 고인의 영원한 안식과 영광된 부활을 빌 뿐이다.

▶ 任 宅 淳 大尉

1953년 3월 6일 고성 351고지 동부전선의 최격전지 상공에서 전사 - 국군 1군단 최전선 지상군 근접지원작전 중 피탄되어 애기가 더불어 적진에 추락 소화함으로써 壯烈한 첫번째 전사자의 기록을 세움. 그의 늘름한 모습이 특상으로 조각되어 공사고 박물관 열자리에 우뚝 서서 수문장처럼 후배들을 따듯이 지켜보고 있다(서울 공사고 전신인 브라매공원 북쪽에 최초의 조각품이 서 있었음).

키는 168cm선이고 얼굴이 희고 두툼한 형이며 당수가 단급이요, 기계체조에도 날렵한 편인데도 적단에는 피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말이 적고 소탈하며 서울 태생(경기도)이지만 간사한 구석이 없었으며, 동정을 그대로 지니고 간 순정파였다.

'53년 1월 23일에 첫 출격을 한 G-Class B반으로서 11회 출격에서 겪은 被擊이었다.

이는 그 당시의 동부전선이 얼마나 치열한 격전장이었나를 알변해 주는 것이라고 할 만하다. 낮에 제공권을 행사하여 공지함 동작으로 점령된 351고지가 야간에는 번번히 적의 수중에 들어감으로써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가운데 적의 손질이 말할 수 없이 큰 데도 막강한 최심식 대공포화를 계속적으로 보강하여 마침내 높은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연일 출격하여 100회 출격자도 생기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任대위가 당해야 했기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戰場에서의 재물 역시 깨우칠수록 그 효열이 크다고 보는 것이 通念인 것으로 여겨진다. 약바리 같고 할렘이 같은 전우들이 오히려 명이 길고 좀처럼 파괴되지 않은 이유가 어찌면故인과 같이 고귀한 희생자의 덕을 입은 결과로 보고 감사드려야 할 이유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의 유물(시체 없음)은 국립묘지 西12묘지-14에 안치되어 있고 그 후 도미한 자당 어른은 미국에 불러앉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 張 昌 甲 大尉

1953년 4월 23일 강릉 상공에서 전사 - 그날의 임무는 적의 후방차단작전(Interdiction)으로서 황해도 사리원 근방의 보급로 집적소와 적재차량 등을 불태우고의 기양양하게 돌아오는 길이였다. 4개 편대 16대가 무려 2시간 이상을 비행하여 무사히 강릉기지에서 상공까지 돌아왔는데 차륙과정에서 장주비행 중 3순회 지점에서 2기인 徐東圭 중위와閃

光石火 같은 충돌로 순식간에 추락하여 애기와 더불어 처참하게 전사하고 말았던 것이다. G-Class B반인 장대위는 1월 22일에 첫 출격하여 그날이 29회째였고 H-Class인 서중위는 4월 6일 첫 출격하여 겨우 3회째 되는 날이었다.

키는 165cm의 단구였으나 둥근 얼굴이 붉은 데다 능변이라 끈끈하고 따뜻했는데 그처럼 완급이 가실 줄을 누가 알았랴!

실로 기술공군의 전쟁터에는 전후방을 가리기 어려운 위험 부담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다만 이를 최소화하려는 부단한 훈련과 배를 짊는 노력이 있을 뿐이었다.

그 후로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된 배경이 되어 준 셈인지도 모른다. 국립묘지 西12묘지-13에 서중위와 같이 안치되어 오늘에 이른다. 형편되지는 장형감 씨가 금년에도 잊지 않고 다녀가실 줄로 믿고 싶다.

▶ 金 啓 一 大尉

1953년 6월 13일(금) 고성 351고지 상공에서 적 지상군 진지를 급강하 공격 중 피탄되어 그대로 애기와 함께 壯烈히 전사하다. 고인에 대한 남다른 추모의 글은 필자야 "보라매 1993 통권 104호"에 게재한바 있을므로 참조하시기 바라지만 '53년 4월 6일에 첫 출격을 기록한 H-Class인 고인이 겨우 6회째 출격에서 空中散華하게 된 비운을 애도하는 마음에 눈물이 젖는다.

그것은 鳥人처럼 날렵하게 생긴 흰철한 키 172cm에 알팍한 콧가죽이 울려대는 명시 낭송의 감정하며, 가요곡 가사의 간드러진 강약과 정서의 표현이 풍류를 즐겨온 전래의 맛의 경지를 제법 풍겨 주었으니 말이다.

고인은 평양산(송인 삼)으로서 단신으로 날라하였으며, 밀월의 새새시를 두는 사연을 영결식 전날 그의 당숙 입에서 알게 되었다. 그 당시의 생각 같아서는 열심히 출격하다 보면 쉽게 만족통일이 성취되리라는 기대감이 살아 숨쉬고 있었는데 그의 전사로 인해서 한풀 꺾이는 기분이었다. 반년 동안에 복한 출신 조종사가 3명이나 유명을 달리 했으니 말문이 막힌다.

국립묘지 西12묘지-67에 유물이(시체는 없음) 안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재복 모친의 이름은 김계환 여사이다.

▶ 高 光 濤 大尉

1953년 7월 18일 강릉 환주로 바다쪽 海霧 속(800feet)으로 離陸해 들어간 고대위는 바로 필자의 앞 편대에서 그 추락지점을 육안으로 목격하며 출격길에 올랐는데 좌선회로 10여km 떨어진 안목방향 해상이었다. 그러나 전사자가 누구지도 모르고 예정되는 15대 편대군(1대 감소)이 Path Finder 2대를 앞세우고

(10면에서 이음)

활해도 신원리역 철로와 보급품 창고와 탄약저장소 등을 정신없이 때리고(대공포화 희망 격심) 기상의 악화로 추천기지에 불시 착했다. 그때 FAC 근무차 현지에 나와 있던 현영성 중위편에 그가 고광수임을 알고 잠시 명복을 빌었다.

고인의 키는 170cm쯤이고 선이 굵은 호남으로서 우렁찬 음성이 남아다웠다. 전남(광주일고) 산이지만 비행훈련 시설에 진주 아가씨와 교제하여 약혼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고대위는 필자와 같은 G-Class A반이면서 51회째 출격길에 공중산화하였는데 영어를 잘해서 작전 장교 근무를 하는 바람에 출격기록은 적은 편이어서 그날도 휴가를 얻은 상태에서 유교 조종사의 대타로 출격길에 올랐다가 전사로 이어진 일은 은 전우들이 매우 애석해 했던 것이다. 더구나 휴전을 9일 앞둔 전사였으니 그 무엇으로 보상할 말이 없으리요. 것처럼 유능한 장교를 하루 아침에 잃은 것이 너무나 비정했음을 여태껏 지울 길이 없다(계기비행 과정을 못 거친 것이 원인임).

필자는 고대위 영전에 바치는 글도 "보라매 통권 101권-1990년 5월호"에 게재한바 있음을 주지해 둔다.

고인의 유해는 국립묘지 서12묘지-12에 안장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형님이신 고희악 씨와의 연결이 잘 안되는 상태이다.

▶ 金達輝 少領

1955년 7월 26일 수원상공에서 고공비행훈련 중 순직하였으니 휴전 후 첫번째 공중산화이었다.

F-51 전폭기의 탑재용 산소 고갈로 빛어진 산소결핍증에 의한 의식 상실이니 천하의 화장도 담할 길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동상 18,000feet 상공에서 작동되는 슈퍼바이저(공기 가압장치)를 점검할 목적으로 고공비행에 들어갔다가 그만 의식을 잃고

추락한 것이다.

수원 제10전투비행단 작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후배들에게 시범적으로 술선수범하려던 훈련에서 그만 순직의 고배를 마셨던 것이다.

김소령은 1927년 12월 25일생이며 함남산이나 서울 경북고 출신으로서 별명이 교장선생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만큼 매사에 간간하고 훈계조였으며 음성도 착 가라앉은 위엄을 지니고 있었다.

6.25참전 기록은 총 58회이며 '53. 1. 22.부터 출격한 G-Class B반의 선두주자였다. 키는 164cm급의 단구로서 얼굴은 검고 자신감이 넘쳤다. 것처럼 자살한 인물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다가 먼저 순직한 이유는 무엇일까? 역시 우리 1기생의 명예를 걸고 남아 있는 자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몸으로 던져준 은덕을 저마다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그의 유해는 국립묘지 서12묘지-56에 안치되어 있으며 부인 지정임 여사의 근황을 모르는 형편이고, 자녀의 유무도 파악이 안된 상태여서 우리의 무관심을 부끄러워할 일이다.

▶ 戚 弼 普 中領

1959년 6월 22일 사천기지 상공에서 비행교관으로 機上근무 중 공중산화하여 순직하였다. 전기한 두 교관과 함께 많은 후배들을 양성한 공로자이다.

그 중에서도 서울(경북고) 출신이고 키가 큰(168cm) 함중령이 H-Class로서 37회의 출격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자원해서 매우 고된 비행교관 근무를 하다가 먼저 하직하고 말았으니 어쩌면 1기생의 대표다운 필연의 마무리를 해준 것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비행훈련 학생으로 시작하여 차진준 대위를 제물로 삼아 자랐고 그 후 6.25참전으로 4명의 전사자를 내어 개선의 영광을 누리고 유비무환의 전후 훈련에서 순직한 김달휘 소령의 뒤를 이어 비행교관으로 후배양

성에 충성을 다하다가 함중령이 순직하였으니 우리가 다 빚진 것임을 통감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밑거름으로 공사 1기생들은 공군 발전에 나름대로의 기여를 하였고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싸웠노라고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제 그 마무리를 함필선 중령이 해낸 것이다.

그의 용모는 약간 검은 얼굴로 늘 무슨 일에 열중하는 분위기를 풍기면서 부지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때는 팔공산 동화사에 잠시 요양 중이던 필자(C-46기종 전환 훈련 중 발병)를 찾아와 고스톱 판을 벌인 일이 있는데, 그때 같이온 아가씨의 밝은 인상이 지금도 그의 얼굴과 함께 생생히 떠오르고 있다. 국립묘지 서12묘지-152에 안장되어 영민하다.

결론적으로 지금도 김를 고포대 로터리에 가보면 "공군 6.25 참전 전적비"가 우뚝 서 있는데 옆 비문에 "51.10.11. 단독(적전) 출격, '52.1.15. 승호리 철교 파괴 : 11회 출격, '53.2.15. 제10전투비행전대를 모체로 제10전투비행단 창설 108명 조종사 총 7,851회 출격 11명 전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전사자 중 4명이 1기생인 것이다. 하지만 조국의 영공수호라는 신성한 임무를 위해 국가의 녹을 먹고 일류 전투조종사가 되기까지 1명의 고귀한 희생자를 내고 있음을 잊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되리라는 것이다(차진준 대위의 공중산화 : 해상추락으로 시체 없음).

그리고 34명의 전투조종사가 3개월 반 내지 8개월간 감릉기지에서 6.25참전으로 혁혁한 무공을 세우면서 4명의 전사자를 내주고 생존해 있음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되리라는 점이다(임택순, 장창갑, 김현일, 고광수 대위 등 제위의 공중산화).

특히 임택순, 김현일 대위가 적

지에서 공중산화하고(시체 없음) 장창갑 대위는 귀환 후 착륙시에 고광수 대위는 출격차 이륙시에 해상추락으로(시체 없음) 산화하였으니 위험지수의 압축판처럼 선명한 교훈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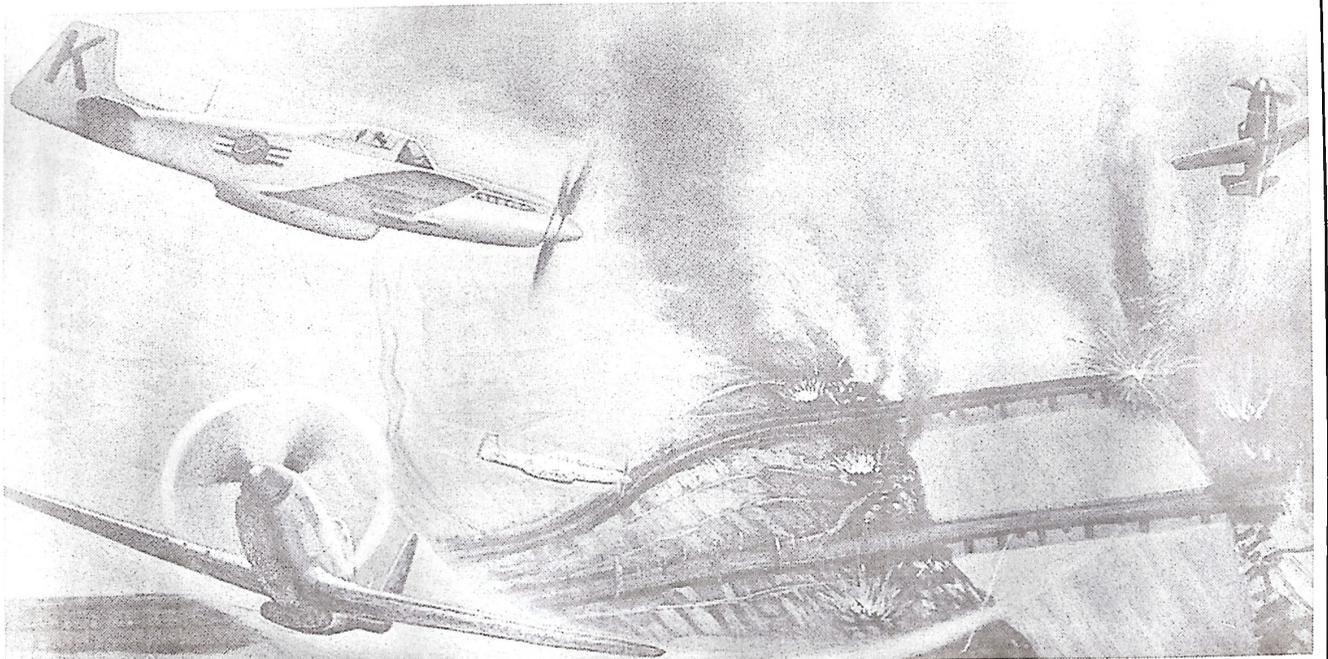
또한, 전투 영공수호와 지휘관 리면에서 고공비행 훈련의 시범을 보이다가 순직한 김달휘 소령(58회 출격)과 37회의 출격 기록을 세우고 비행 교관으로 합류한 함필선 중령의 순직으로 50년대('59.6.22. 산화)를 마감하고 있음을 본다.

실로 공사도 입교 후 10년간에 이루어진 일이다. 모두 다 한결같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 하늘을 지키다가 목숨을 초개처럼 버린다고 다짐해 왔는데 이제 명실 상부하게 공중산화한 7명의 전우들이 하나같이壯烈하게 그 일을 완수하신 것이다.

너무나 분명한 것은 가신 님들의 不朽한 희생을 딛고 오늘에 이르는 무슨 수로 보상할 수 있으리요. 그저 한결같이 공중산화로 목숨을 하늘에 바친 님들의 순수성과 투철한 애국정신을 영민히 기리며 애국애족이라는 그곳에 지속적으로 담아내는 일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님들의 동상을 입택수 대위에게처럼 각각 제자리를 찾아서 건립하는 일이 긴급하다. 소견 같아서는 적전에서 산화한 김현일 대위 동상을 공사교에 모시고 장창갑 대위 동상을 강릉에, 고광수 대위 동상을 광주에, 차진준 대위와 함필선 중령 동상을 사천에, 김달휘 소령 동상을 수원에 모실 일이다.

이는 북두칠성의 별자리처럼 어둠을 몰아낼 성좌가 되어 길이길이 우리 공군을 밝혀 줄 영원한 별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일은 노병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꼭 이루어야 할 시한부 과제이다. 결과적으로 유족을 돌보는 일도 병행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 예절 바르게 "공중산화한 전우들을 기리게"할 것이다.



21세기 詩想形成을 위한 主觀의 作用



朴 雄 鎮(47)
공사중동창회 4대 회장
시인

시는 철저한 주관적 산물이며 그 표현이다.

그러나 그 주관이란 시인의 점진적인 영역과 인생 경험의 승화 및 계층적 영역에는 시인마다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그 결과는 시에서 참신하고 개별적인 심정 정화의 작용이 무디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주제화되는 시혼의 빈곤이 생겨나며 시의 에스프리가 약화되어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없게 된다. 이런 시는 결국 신빙성이나 감각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시인의 위대한 창조적 정신을 보여줄 수 없게 된다.

최근에 우리 나라 일부 지면을 횡행하고 있는 시 가운데서 시 이전의 시가 발생되고 변식하고 있는 것은 한국 시단의 앞날에 일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다. 또 한 시가 상품지면에서 하나의 면적을 메우는 구실로만 쓰여진다면 문학에 대한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시인과 시를 명백히 구별하려면 언제나 엄격한 정신 영역의 표현이 필요해지듯 한 시인이 시의 감흥을 일으킬 때 가장 先行되어야 할 것은 Image의 승화에서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사상적인 심오한 깊이와 경험의 광범한 순화, 환상의 신비경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詩作과정에서 이런 本質적인 세계는 듣지고 生活의 日記 같은 작품을 구상한다면 이는 산문의 초보에 불과한 것이 된다. 내재물이 없는 시에서 시적 감동의 진폭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시는 소설처럼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의 獨立된 영혼의 질료로서 질서의 표현이며 정신의 그림자이다. 까닭에 시는 의도가 아니다. 「存在」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은 詩論의 가장 중요한 位相이며, 본질적인 것이다.

시인은 美를 조직적인 기준으로서의 두 가지 양적인 용적, 곧 통합, 환상의 수준과의 통합된 소재의 총량을 실현시켜야 한다. 이 총량은 바로 대상을 견잡아(여기서 대상은 外延의 범위, 형식, 감량 따위이다) 내재적인 통합의 강도, 연결, 수법의 선택 등과 선율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최근에 우리 나라 일부 지면에 보여지는 시들이 1920년대~40년대 작품보다도 조화를 통한시하거나 무시한 결과로 시의 파격적 양상이 서슴없이 나타남은 매우 상스럽지 못한 일이다. 시인이 젊다는 것은 연령이 아니다. 에스프리의 참신성을 말하는 것이다. 단테의 신곡이나, 타고르, 한용운, 이육사, 윤동주, 이상화, 김동명 같은 시인들의 에스프리는 그 연령보다 젊었다. 그것은 부단한 지적 선율-정신적 건강이 지속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침묵과 김용호, 이상화, 신석정, 신동집 등의 시 세계도 그러하다. 그렇다고 이 밖의 시인들의 시적 연령이 조로(早老)하다는 의미와는 별개이다. 우리는 한 시인의 감정이 무엇을 「지향」하며 풀어오느냐? 즉, 감각작용의 진폭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역시 詩 중량을 측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만해의 「님」을 찾는 음성은 가장 맑고, 깨끗하고 승고한 시어들을 조각해 놓았다. 그 시어 속에는 마르지 않는 생물이 솟고 있다. 그리움의 한량없는 시적 향수가 솟고 있다.

침묵과는 「兩山」의 신성하고, 깨끗한 세계의 자발적 귀로 박목월, 박두진 시인들의 초기 작품을 성공시켰다. 민속적 해감을 念願한 조지훈 시인도 그렇다. 신석정의 전원목가, 김동명의 생명구도가 그렇다. 김용호의 서민적 향수는 현대시 체질화의 본보기이다.

T.S. Eliot의 시 세계에서도 主觀은 확고하게 표현되어졌다. 작품 「프루프록의 戀歌」를 분석하여 보자.

그러면 우리 감시다. 그대와 나 지금 저녁은 수술대 위에 에테르로 마취된 환자처럼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감시다. 거의 인적이 끊어진 거리와 거리를 통하여 값싼 一泊 旅館에서 편안치 못한 밤이면 밤마다 중얼거리는 말소리 새어 나오는 골목으로 해서

굴겹질과 톱밥이 흩어진 음식점 사이로 빠져서 우리 감시다. 을흥한 意圖下에서 싫증나게 끄는 論議처럼 연달은 그 소리들은 그대의 압도적인 문제로 끌어 넣으리다.....

아아 「무엇이나」고 묻지는 말고 우리 가서 방문합시다. (중략)

이 시에서 주관은 개성적이면서 보편성의 내재움을 이끌고 있다. 이 시에서 그는 매우 중요한 「人類史的」 소명을 받고 있다는 그 주관성에서 널리 공감을 얻고 있다.

여기서 「그러면 감시다」라는 전제는 바로 Eliot가 세계대전 이후에 전 인류의 새로운 삶의 질서 회복에 대한 신념이며, 그 조건은 바로 「저녁 노을이 수술대 위에 에테르로 마취된 환자처럼 하늘에 퍼질 때」로 주장되어지고 있다.

전반자들의 숨결이 이 지구 위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시간, 그 시간은 바로 인류의 새 삶이 시작되는 때라고 하는 Eliot의 시인으로서의 확고한 주관성이다.

이렇듯 시인은 역사 의식으로서의 부단하고도 확실성 있는 주관성이 없이는 시가 완수될 수는 없다. 우리 나라 시에서는 1920년대~40년대의 시인들에게서 이런 신념은 삶의 질서에 관한 확고한 주관으로 형성되었다. 일제의 잔혹한 죽음의 고문 속에서도 애국적 시인인 윤동주, 이육사, 이상

화, 한용운 등의 주관은 위대한 신념으로서 용해되어 민족시의 찬란한 금자탑을 세워주었다. 1950년의 민족 수난시 우리 시인들은 울적하고 허무한 방황의 길목에서 자폭적인 처절감을 보여 주었다. 거기에는 그 수난 속에서 내일의 전망이나, 인생관보다 나약한 절망 의식을 남겼기 때문이다. 60~70년대의 정치적 변동기를 자주 만나는 과정에서 위대한 민족의 대항진곡이나, 민족 자존의 찬란한 기백은 그다지 크지 못했다. 이것은 역시 시인의 주관성이 역사 의식으로서의 철학성을 통한시한데 있고, 보다 더 기본적이거나 신변적인 기록에 가까운 것들이 많았었다. 휴전선이란 분단의 어두운 현실에서 보다 가시적인 민족의 불타는 정열과 신념과 주장은 상황에 비취 볼 때 하나의 문자적인, 아니 작게 보아서 하나의 詩史의 인화적 성격도 볼 수 없다.

Eliot의 「황무지」에서와 같은 철저한 史의認識에서 오는 서구 문명의 몰락에 대한 인류적, 혹은 작게 보아도 숲 서구인의 반성이 주관적인 시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위대한 시인의 면모도 하겠다. 그는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상징함으로써 하나의 역사의식을 자신있게 제시해 주었던 것이다. 1922년, 그것은 Eliot에게 있어 하나의 史의 계기가 되어 詩의 이미지를 이끌고 있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렇게 그는 사월을 비교급의 최상급인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까지 심화하고 강조한다. 그만큼 「4월」은 영국인, 아니 숲 서구인에게 있어 철저한 史의인 계절로 인식되었다. 인위적 4월의 잔인성과 자연의 고마운 4월을 대조시키고 있다. 그는 이 詩에서 史의인 의미의 「4월」(봄)은 잔인한 반면에 그것과 대조시킨 자연의 4월은 보람있는 생명의 질서 속에서 찬미하고 있는 것이다. 詩의 대조법으로 된 내재물의 위대한 구성이다. 자연의 4월은 참혹하고 잔인한 인위적인 사건의 4월에 비하여 다음과 같이 생기고 보람진 계절이 되어졌다.

「라일락은 자라나
주어진 대로부터
추억과 함께 성욕이 섞이며
잠들던 뿌리가 봄비로 눈썹다」

이렇게 自然의 4월과 인위적 4월은 이 시편의 훌륭한 대조의 보기이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외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윤동주의 「자화상」의 결연이다. 여기에는 긍정적 인간 자아각성과 그 인식은 부단히 자기 신념의 주관을 확립시키고 있다. 객관적의 대조적인 세계가 확립되어 있

다. 나아가서 이러한 인식의 史的인 통찰은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서 「빼앗기기 이전의 봄」과 「봄의 땅」이 그 시의 배후에서 이미지의 생략 작용을 함으로써 표현된 현실의 「봄」은 상화에 있어 Eliot처럼 잔인하고 처절했던 것이다. 오늘 우리 최근의 시에서 적어도 중견 시인들까지를 포함한 좀더 좋은 시의 시에서는 좀처럼 그러한 詩的 인식은 거의 소실되어진 감이 있다. 그 이유는 시인의 교양, 지력, 사색의 빈곤이 아니다. 역사적 인식에 대한 시대성의 시적 용해과정이 심화할 시간을 못가 지내 있다. 자아의 현실을 史의인 견지에서 통찰하고 판단하는 기능의 부족이다.

따라서 자주 신변의 비애나 객관적 과잉비판으로 그치면서 보다 「미래지향적인 주장」과 「역사 창조자로서의 의식적인 자아 인식의 주관성」이 고갈된 탓이다. 시대가 다르면 관념도 달라진다. 이것이 문학인의 도량일 것이다.

그러나 시인만은 그런 수준을 초월해야 할 것이다. 시인은 영혼 창조자로서의 의식적인 자아 인식의 주관성, 선발중재자이며 그 위대한 추진자이다.

바로 시적인 주관은 시인의 지적인 한계와 경험의 한계를 전체로 하여 시작의 능력을 보여주게 된다. 따라서 절박한 의견은 바로 전인적인 인간성으로서의 시인 자체가 준비했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품성, 인격, 자아의식의 고상하고 무한한 세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워즈워드가 대자연에 대한 한없이 넓고 깊은 이해가 있었다는 것은 그가 바로 인간으로서의 깊고 폭넓은 경험과 심오한 사색이 철학적 범주에서 그만큼 전인적 형성이 구성되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시인이거나 소설가, 극작가에게서 문학 영토의 표준을 측량하는 척도는 바로 그 전인적으로 인격화되어진 교양과 신념과 행위의 자아 의식으로 이뤄진 확고부동한 높은 차원의 세계인 것이며, 기타의 작품 구성에 쓰여진 기법은 그 다음의 재질이나 기능력의 문제에 머문다. 아무런 기법이 훌륭해도 그 기법을 구사하는 잠재력인 작자의 인간적인 수준이 평가되기 전에 우리는 작품의 수준을 측량할 수 없게 된다.

낭만주의 시대의 문인들이 남긴 작품이 낭만의 물결을 타고 갔다고 해서 그 작품이 윤리나 인간성에서 벗어났던 것은 아니다.

(12면에서 이음)

그들이 낭만의 진미를 깨쳤던 만큼 낭만 자체가 하나의 타락이나 부패가 아니고, 의젓한 주관의 개성적 표현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건전한 작품만이 어느 시대에서나 건전한 사회도회의의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바로 느꼈어야 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소설 중에 특히 부패한 윤리, 타락한 인간성의 묘사가 유행함은 그 작가의 인간적인 파산된 잔재를 보여 주는데 불과한 것이라 하겠다. 인간수업이 결여된 기교나 재주 부림이 어떻게 걸작이라는 명칭이 붙을 수 있겠나. 이런 예는 세계문학사 위에 올라 본 역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다. 작품이 부패했다는 것은 그 산모가 건전치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 같다. 시는 가장 위대한 인격체의 승화된 발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타락한 소설이 판능적인 세계를 광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시가 그런 타락을 모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시적 주관이란 바로 시인의 인격적인 세계를 상징하며 그 전인적인 인간성의 한계를 말해 주는 것이다. 시 정신이 모든 예술 및 창조적 기본 정신이 되어진 까닭은 바로 여기에서 연유한다. 시는 인간정신의 가장 높은 곳에 뿌리박고 있기에 그것은 인간성이나 정신 및 사회

와 역사의 질서를 혼란케 하거나 훼손시켜선 안된다.

또 마음의 세계에 흔탁한 흔적을 남겨서도 아니되며, 인간의 지를 방황으로 이끌어도 안된다. 그 이유는 바로 건전한 인간을 광란한 자로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타락이 그 계기를 만드는 문학작품이라면 그것은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천추(千秋)의 독아(毒芽)에 불과한 것이다. D. 루이스가 「시는 모든 것을 언어로 그린 그림」이라고 말한 뜻은 바로 만물이 정리되어진 영상이라는 것이며 혼란, 타락, 방황의 무기가 되어선 안된다는 의미이다.

민족의 모랄, 애국적 이상, 휴머니즘이나 인간애가 결여된 역사철학이 없는 시인이나 시에서 우리는 문학의 가치를 기대할 수가 없다. 까닭에 시적 주관은 주관으로서 주관이 되어질 때에美學이 되어진다. 이 과정은 실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 작품의 생명에 한계를 주기 때문이다. 그 가치 의식의 척도, 질서로서의 비중이 좌우되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詩歌는 생명의 의란이 된다는 데서 책임도 큰 것이다. 선풍을 읊은 간단한 소재 속에서도 시는 역시 우리에게 성장의 리듬을 좌우한다.

예컨대 어떤 한 폭의 그림을 상상케 하는 극적인 스토리나 정서를 깨끗하게 흔들여 주는 리듬과 淸定된 心象을 마련해 주는

시구의 언어적 선택 같은 것은 바로 심정을 어지럽힐 없이 맑고, 밝고, 정연한 속으로 풀어들이기 때문에 질서와 조화를 독자의 가슴에 부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한 카타르시스의 작용인가?

잠 자거라, 아가야 나무 위에서 바람이 불면 요람이 흔들리고 나룻가지 부러지면 요람도 떨어지느니 아가람 요람이랑 모두가 떨어지느니

이런 정서 속에서 무한한 평안과 영원한 질서의 조화를 호소하는 승화감이 고요히 흐르고 있다. 한갓 선풍의 시적 표현이 아니라 고상한 질서를 요구한다면 우리가 쉽게 써 가는 시가 한 번쯤 반성해 볼 여지가 없을 수 있겠는가. 이 시의 모티브는 오직 평정된 상태를 동경한다는 데 있다. 안전기조를 찾으려는데 있고 혼란을 등지려는데 있고 과격적 생명을 혐오하는데 있다.

그 행시는 바로 「바람이 불면」에 있다.

「바람이 불면」이란 곧 하나의 질서를 흔드는 외부자극이다. 그리하여 조화의 혼란을 초래하고 인물의 파산을 가져오며, 모랄의 타락적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요람이 흔들린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러한 원인에서 오는 것이다. <나룻가지가 부러진다>는 극

한에 이르러서는 생명이나 존재의 좌절을 뜻하는 것이다. 까닭에 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인의 주관적 한계성은 그의 문학적 세계의 질서와, 조화와 통일에서 일어질 수 있었다. 현대시의 가장 뚜렷한 조명을 밝혀 준 엘리엇의 시가 가장 심오하고도 절실한 현대인의 대변자인 까닭은 바로 그가 현대의 어느 시인보다도 투명한 주관의 광선을 우리 앞에 준비해 주었다는 사실이다.

현대의 질서는 바로 투명한 질서 속에서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고전 시대가 투명했으나 그 빛이 원시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있었고, 중세로부터 근대 이전까지가 인물의 반투명한 의식 과정이었던데 비하여 현대는 기계의 조직적 구조성에 의하여 가장 투명한 주관의 광선을 뿌리고 있다는 사실이 현대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하여도 좋겠다.

현대인의 사고방식은 대체로 투명하다.

그것은 자아에 대한 집념에서부터 그런 표현을 가지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현대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하겠다.

흐릿하던 인간애로 엮여지던 근대 사회의 인간 存立의 질서에 향수를 느낀다. 그것은 참다운 「나」를 발견하고 21세기 詩人の 가치관을 재정립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찬조금 보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99. 7. ~ ’00. 6.까지)

김상태(공사 2기) 전 공군참모총장	300만원
박재성(공사 2기) (주)현우개발 대표이사	100만원
김동호(공사 2기) 재향군인회 직능부회장	10만원
김인기(공사 3기) 전 공군참모총장	30만원
이종학(공사 3기) 서라벌군사연구소장	50만원
이양호(공사 8기) 전 국방부장관	30만원
김홍태(공사 10기) 전 공군참모총장	20만원
이광학(공사 11기) 전 공군참모총장	20만원
이승오(공사 11기) (주)방림 부회장	60만원
권태정(공사 11기) 보라매회 대경지회장	10만원
박훈택(공사 12기) 전 공군참모총장	200만원
김태규(공사 12기)	10만원
이억수(공사 14기) 공군참모총장	200만원
박홍배(사후 54기) 군인공제회 서초사업단 기획본부장	50만원
..... 소 계	1,090만원

한주석(공사 7기) 공사 총동참회 회장	500만원
김준수(공사 7기) 공사 총동참회 부회장	100만원
강상원(공사 7기) 공사 총동참회 감사	100만원
공영화(공사 7기) 공사 총동참회 이사	100만원
김인수(공사 7기) 공사 총동참회 이사	100만원
오세창(공사 7기) 공사 총동참회 이사	100만원
오학수(공사 7기) 공사 총동참회 이사	100만원
정해일(공사 7기) 공사 총동참회 이사	100만원
곽석태(공사 7기) 신일상사 사장	100만원
강영식(공사 7기) 공사 총동참회 사무총장	100만원
박종주(공사 7기) 7기생회 이사	50만원
공사 7기생 회원 각각 10만원(38명)	380만원
곽석태 강상원 김석천 김영근 김태창 김인수 김수호	
김윤태 김국장 김성광 김형식 김승수 김정동 맹무열	
박찬욱 박창수 박노진 박양우 박민엽 박용수 박기순	
송해혁 신덕식 오세창 이강일 이한용 이우성 정구석	
전상환 정삼일 조재민 채인수 최인철 최규창 최창환	
허두기 홍인규 최호식	
공사 칠성회(7기생회)	500만원
..... 소 계	2,330만원
..... 합 계	3,420만원

■ 揭 示 板

平生會費 納付
평생회비는 10만원입니다. 미납하신 회원(예비역, 현역)은 직접 또는 각 동기회를 통하여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회비는 전액 기금으로 조성되며 운영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會報原稿 募集
매 분기말 10일 전까지 마감합니다. 좋은 원고 많이 부탁드립니다.

身上變動連絡
주소, 전화번호, 직장(취임, 승진, 전보) 등점, 자녀결혼, 이혼(同門)이 있을 시 연락바랍니다.

期別消息
各 同期生의 소식(모임, 행사, 선행, 친목 등)을 1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4면에서 이음)

■ 화 혼

- 하 두 호(6기) : 장녀 진경 양 4. 29. 13:00 신촌 성결교회에서
- 김 진 수(7기) : 차남 은우 군 4. 6. 13:00 공군회관에서
- 박 석 만(7기) : 차남 태영 군 4. 15. 13:30 롯데예약실에서
- 전 상 남(7기) : 장남 훈 군 4. 29. 13:30 대구 알리앙트예약실에서
- 정 원 호(9기) : 차남 태승 군 6. 8. 13:00 향군회관에서
- 김 재 달(10기) : 아들 인회 군 6. 17. 15:00 컨벤션센터에서
- 박 덕 회(12기) : 차녀 지은 양 4. 30. 12:00 프라자호텔 별관에서
- 안 병 철(13기) : 장남 치웅 군 6. 3. 15:30 군인공제회관에서
- 박 경 석(21기) : 장녀 보라 양 6. 17. 14:00 통일교육원 강담에서

☒ 축하합니다 ☒

자녀 결혼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전보 및 회보에 게재하여 다같이 축하하겠습니다. 동기생의 주소로 청첩장 우송을 대행해 드립니다. 총동참회의 축하 깃발을 빌려드립니다.

會 員 動 靜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기수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2기	장기용	서울시 서초구 반배동 932-25	599-8171
2기	진지범	남양주시 오남면 오남리 362 한신차(아) 101-501	031-528-5885
2기	이지영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55 백마마을 삼성(아) 112-101	031-901-6800
2기	유수호	분당구 수내동 청구블루빌 999-720	031-713-5969
4기	김환중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860-301	031-751-2248
5기	이원천	서울시 강북구 번동 416-22 18층 7반	991-7875
5기	윤춘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덕천리 1021 신정마을 성지(아) 506-1801	031-262-0623
5기	황교찬	서울시 구로구 오류1동 13-20	686-1983
5기	송도빈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정명2동 호수마을 삼원(아) 307-1202	031-903-8177
6기	손진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77 개치마을 1단지 롯데(아)114-1301	031-714-6558
6기	전춘우	서울시 용산구 동부이촌동 300-10 점보(아) 403호 (E-Mail : cuchon@KCSC.co.kr)	796-6663
7기	강상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덕천리 1021 신정마을 성지(아) 507-1902	031-265-1790
7기	이환용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322 동양(아) 103-701	031-635-1847
8기	박영두	강원도 강릉시 괴동 부영(아) 601-404	033-647-3173
8기	홍영규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한신(아) 811-101	031-204-8206
8기	최광주	충남 논산시 두마면 염사리 384 비사별(아) 102-205	041-841-7153
9기	천왕봉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경서마을 대우(아) 108-1203	031-913-1741
10기	김종선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273 신정5차 현대(아) 502-906	514-2239
12기	박덕희	서울시 동작구 사동2동 105 우성(아) 204-607	?
13기	이기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상록마을 우성(아) 323-803	031-717-6772
14기	허규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덕천리 신정마을 현대(아) 206-1202	031-261-6030
14기	이용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덕천리 신정마을 현대(아) 205-1402	031-261-1702
14기	김영오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우성(아) 101-510	533-6005
14기	김수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장상(아) 306-802	031-914-6737
17기	박원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 대우(아) 105-2601	031-458-9400
17기	이철희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우성(아) 102-2106	871-5198
17기	김준수	대전시 서구 삼전동 철산(아) 8-704	042-484-1762
17기	김익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70 은빛마을 삼익(아) 526-1603	031-958-9200
17기	안광수	인천시 남구 용원5동 647 용원2단지 글로타운(아) 201-1102	032-891-3729
17기	차옥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정명2동 875 호수마을 삼원(아) 306-1004	031-904-1096
22기	김정근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3동 303-20 401	835-5007
24기	이원중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297-2, 2층 202호	031-907-1819
24기	정정조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목동(아) 1405-803	654-8856
29기	김철생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주공(아) 712-106	427-1078
33기	김봉준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672 전영(아) 101-1002	031-983-3352

인사 및 직장동정

- 4기 박 雄 鎭 동문(4기 본회 4대 회장, 시인)은 지난 4월 25일 14시 예술의 전당 서예관 4층 문화사랑방에서 열린 문화사가 후원하고 국제문화예술협회가 주관하는 "황회문화예술상" 시상에서 문학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황회 정승을 존경하는 문인, 학자, 모든 후학들의 뜻을 합하여 "황회"란 人物의 학문과 인품에 걸맞는 文化人을 해마다 선정하여 시상하는 상으로서 文化人의 자랑스럽고, 빛나는 영예의 상이다.
- 7기 鄭 相 逸 : 공군대학 명예교수 취임
本會 정삼일 同門(7기 전 공군대학교수)은 지난 3월 공군대학 명예교수로 임명받았다.
鄭 會 員은 軍 服 務를 20년간 모범적으로 끝마치고 공군대학교 교수로 취임하여 20여년간 후진양성에 전심·전력을 다하다가 지난 1월 말로 정년퇴직하였으며, 재직 중 그의 타고난 근면성실함과 애교심은 물론 해박한 전문지식을 인정받아 공군대학교 교이래 명예교수 1號로 임명받았으며, 계속해서 전공과목을 교수하게 되었다.
- 7기 이 주 성 교수 논문 伊 경제 학술지에 실려

本會 이주성 동문(7기 심신여대 정보산업대학원장)의 "칼마르크스의 노동강도와 잉여가치"란 논문이 "이탈리아"의 "로마와 피사"에서 발간되는 "경제사상사(History of Economic Ideas)" 최근호에 게재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세계 유수의 경제사상사 전문학술지에 국내 학자의 논문이 게재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며, 이는 이 교수의 논문이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 논문에서 이 교수는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노동강도 증가로 생긴 잉여가치의 개념 규정을 모호하게 처리한 대목을 비판하고 있다.
"노동강도의 상승은 필요노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의 연장과 같다. 따라서 상대적 잉여가치가 아니라 절대적 잉여가치 범주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 논문의 핵심 내용이다.

부 음

- 주 동 석(2기) : 4. 30. 아주대병원에서 별세
이 범 직(5기) : 이통문의 모친 5. 2. 중앙병원에서 별세
박 종 회(5기) : 박동문의 모친 5. 6. 별세
박 양 우(7기) : 박동문의 모친 4. 9.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별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期/別/消/息

17기

- 1기생회(회장 김영환)는 지난 4월 1일 윤자중 동기가 보라매회 제17대 회장으로 취임한 것을 계기로 보라매회를 발전시키고 육성하는 것이 동기생 생애의 마지막 공군에 대한 봉사라고 결의하고, 또한 윤자중 동기의 회장 책무를 적극적으로 성원한다는 뜻에서 1,000여만원밖에 없는 동기생 기금에서 500만원을 보라매회 운영기금으로 쾌척하였으며, 1기생 회원들의 보라매회 평생회비 미납액 약 500만원을 동기생 기금에서 先納하고, 미납 회원들에게서 남부반아 동기생 기금에 충당하는 것으로 결의하여, 1기생회 명복과 품위를 지키고, 다른 보라매회 회원들에게도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 2기생회는 현충일을 맞이하여 지난 6월 5일 국립묘지에 고이 잠든 동기생 15명의 묘지를 참배하고, 공사 교장 및 참모총장이었던 김정렬 참모총장과 최용덕 참모총장의 묘소를 참배하였다.
- 3기생회는 지난 5월 15일 김영환 회장과 18명이 통일전망대와 351고지를 탐방하였다.
351고지는 그 당시의 동부전선이 얼마나 치열한 격전장이었던가를 회상하는 곳이기도 하다. 낮에는 공지협동작전으로 아군이 점령하고 밤에는 빈번히 적의 수중에 들어가는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가운데 적의 손길이 엄철한 것이었으며, 아군의 손실 또한 적지 않았다.
1기생 조종사들은 대부분 이 전투에 참가하였으니 그날의 적진을 향하여 기수를 내리꽂던 감회가 컸으리라. 불행히도 351고지 근접 작전에서 동기생 임택순 대위(1953. 3. 6.)와 김현일 대위(1953. 6. 13.)가 산화한 가슴아픈 회한도 느꼈으리라.
당사가 앞서 6·25전쟁시 산화하신 전우에 대한 추도 행사와 타종 행사로 산화한 전우의 명복을 빌었으며, 전신과 광장에 마련된 351고지 전적비에 옆에 L-19(ROKAF)기가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L-19 대신 F-51로 교체전시하고 F-51의 홍보관 시설과 우리 공군의 공적과 당시 산화한 공군 용사들을 위령하기 위한 구조물 설치를 건의하였다.

57기

- 1기생회(회장 전운수)는 지난 5월 15일 공군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현충일 참배 계획을 토의·결정하고 회원 건강과 상호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하여 등산, 골프 및 바둑 同好人들의 모임을 적극 추진 지원하여 동호인 모임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 5기생회는 현충일을 맞이하여 지난 6월 5일 12:00시 서울과 대전 현충원에서 고이 잠든 동기생들의 묘소를 참배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71기

- 1기생회(회장 김준수)는 현충일을 맞이하여 지난 6월 1일 동기생 부부 및 미망인을 대동하고 대전 현충원에 고이 잠든 동기생들의 묘소를 참배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었으며, 특히 대전 현충원과 공군본부의 협조로 현충원의 전철차에 따라 현충탑을 참배하고 현충원장의 친절한 안내와 설명을 청취하였다.
- 7기생회는 지난 6월 5일 서울 현충원 참배에 이어 동기생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임기 3년의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하였다. 새 회장에는 꺾여달 장장이 선출되었다.

87기

- 1기생회(회장 김덕영)는 지난 5월 31일 18:00시 웨딩타운하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현충일 행사 계획과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8次年度 운영 기수로서 총동창회 업무 인수 계획 토의와 인수 회장단을 선출하였다.

(13면에 계속)

空士總同窓會 消息

2000年度 定期總會 開催

지난 6월 15일 18:30분에 공군 회관 대홀에서 공군사관학교 총 동창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강영식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개회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본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前 생도대장 윤차열 장군(공사 23기)에 대한 감사패 수여에 이어 본회 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또한, 보라매회장(1기 윤자중 참모총장)의 축사 및 격려사가 있었으며 강상원 감사의 감사

보고가 있었다.

사무총장의 회무보고에 이어 심의의결 안건인 7次年度 결산안 및 8次年度 任員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하고, 이일 회장의 이일 인사와 성무회기 이양 및 신임 회장의 수락 인사가 있었으며, 기별 부회장 및 이사는 신임회장단에 위임하고, 공군 국악군악대의 국악 연주와 사물놀이 등 축제분위기의 총회는 21:30분에 폐회하였다.

8次年度 任員 選定

- 會 長 : 유상신
- 副 會 長 : 김덕영, 조현호
- 監 事 : 백상희, 홍영규
- 事務總長 : 윤석문
- 理 事 : 강기석, 강재학, 김도식, 김상록, 김원술, 서진태, 송재선, 신재익, 안창명, 오세덕, 오대기, 윤대봉, 이남규, 이상진, 이준영, 임행백, 유창근, 전석근, 전순배, 정승채, 장정효, 조승래, 최홍범 23명

空士總同窓會 會長團 空軍本部 禮訪

공사총동창회(회장 한주석) 회장단은 지난 5월 13일 신임 공군참모총장(대장 이억수) 취임 축하 인사차 공군본부를 방문하여 공군참모총장 이억수 대장 및 공본 참모들과 상견례와 대화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본

회장은 그간의 성원에 감사할 표하고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하고, 특히 '99년도에 새로 마련된 제도와 方針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이억수 참모총장께서도 총동창회의 발전에 적극 협조 성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本會 會長團 空士 母校 訪問

本會 會長團은 지난 5월 13일 신임 모교 교장(주참성 중장) 취임 축하 인사차 母校를 방문하여 母校 校長 및 참모들과 대화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본會 會長團은 '99년도에 새로 마련된 제도, 즉 본회 회원의 母校 出入절차 개선, 졸업 및 임관하는 신규 회원의 평생회비 납부제도 등의 지속적인 유지·발전과 母校에 근무하는 本會 會員들의 모범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하였으며, 모교 교장 주참성 중장께서도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약속하고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한주석 회장의 개회인사



윤차열 장군(공사 23기)에 감사패를 수여



공사 총동창회(성무회)가 이양



본회 회장과 주참성 공사고장 대담

編 輯 後 記

1. 本會의 편집방향을 同門消息과 會員動靜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많은 玉稿가 지면관계로 이번 18號에 게재 못하였으며 이들 원고는 다음 19號에 게재토록 하겠사오니 앞으로도 동문회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기고 바랍니다.
2. 공사총동창회 발전을 위하

여 광고 협찬을 해주신 (株)三一事務機 代表理事 成南慶(5기), 대한지적공사 全春雨 社長(6기), (株)中央高速 金鴻來(10기) 社長 및 웨딩 타운하니 이구목 社長께 감사드립니다. 광고 게재가 필요하신 분은 총동창회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게재하겠습니다.



母軍 · 母校 短信



● 6·25 參戰 조종사 초청 행사

공군본부는 6월 9일 6·25전쟁 참전 조종사 50여명을 공군본부로 초청, 선배 조종사들의 애국훈과 정열을 계승하고, 참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창규(5대), 장지람(9대), 김성룡(10대), 김두만(11대), 옥만호(12대), 윤자중(14대) 전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하여 6·25전쟁 기간 최다 출격 기록(170여회)을 갖고 있는 박용만 대령(예) 등이 참석했다.

이역수 공군참모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소중한 자유 민주주의를 영유하고 우리 공군이 국가안보의 핵심 전력으로

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참석하신 선배님들의 고귀한 땀과 눈물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서 "후배들은 선배님들의 불사조 정신을 계승,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새천년 선진정예 공군 육성'에 모든 지혜와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우리 공군은 6·25전쟁기간 중 F-51 무스탐 전투기로 총 8,500여회를 출격해 UN공군 중 두번째로 전투 출격 기록을 수립하였으며, 출격 조종사 117명 중 39명이 100회 이상의 출격 기록을 수립하는 영예를 얻기도 했다.



● 空士 校長 離·就任式 舉行

第35代 校長에 주창성 中將 就任 공군사관학교 제35대 교장 취임식 및 제34대 교장 이임식이 지난 4월 28일 이역수 참모총장, 이원중 총복지사, 나기정 청주시장, 역대 공사 교장 등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무 연병장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인사 명령하달, 지휘권 이양, 열병, 참모총장 훈시, 이·취임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임하는 안병철 중장은 "생도 교육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던 소중한 기간"이라고 소감을 피력하였으며, 신임 교장은 "생도들이 조국과 명예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참 군인이 되도록 「조국」과 「명예」를 생도 교육의 목표로 삼아 정예사관생도 양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새로 취임하는 주창성 교장은 공사 16기로 임관, 공군과 대외부서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전투기 조종사로서 KAIST 전자공학 박사를 취득, 문무를 겸비한 지휘관이다.



● 期別 平生會費 納付 現況

2000년 6월 23일 現在

기 수	출업인원	순직사망	이민유고	참가가능인원	회비납부인원	납부 %	예비역
1	83	30	17	36	36	100	36
2	141	10/25	22	84	39	46	84
3	136	32	21	83	39	47	83
4	102	24	13	65	32	49	65
5	159	36	19	104	53	51	104
6	73	15	10	48	48	100	48
7	93	22	12	59	62	105	59
8	83	3/8	13	59	34	58	59
9	65	11	9	45	28	62	45
10	63	9/3	2	49	40	82	49
11	67	13	4	50	52	104	50
12	61	6/3	10	42	32	76	41
13	63	5/5	3	52	29	56	50
14	62	6	2	54	24	44	61
15	62	6	6	50	24	48	49
16	64	6/1	2	55	18	33	51
17	69	5	4	60	25	42	53
18	81	7/2	4	71	22	31	55
19	89		4	44	14	32	48
20	107				7		54
21	106	4	3	97	10	10	58
22	113	6	5	96	5	5	48
23	111	2			5		41
24	137	7			9		48
25	127	3			8		46
26	127	4			1		26
27	129	4			6		18
28	127	5			1		19
29	147	6			28		20
30	156	4			5		30
31	172	6			1		24
32	169	1			-		5
33	174	1			1		8
34	170	3			-		3
35	259	7			-		11
36	262	6			2		19
37	254	2			-		13
38	236	4			-		11
39	223	1			-		16
40	243				-		12
41	242				1		4
42	277				-		2
43	271				-		
44	211				1		
45	211				-		
46	230				-		
47	201				-		
48	193				193	103	53

평생회비 납부 인원 : 845명